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5. 1.(수) 12:00	 통계청 여성가족부
	배포일시	2019. 5. 1.(수) 8:00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통 계 청 과 장: 이재원 (042-481-2233) 사 무 관: 이영수 (042-481-2242) 여성이족부 과 장: 최은주 (02-2100-6231) 전문위원: 전재은 (02-2100-6237)	

2019 청소년 통계

일 러 두 기

□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통계청에서는 2002년 이후 매년 청소년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청소년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기본법(9~24세)을 기본으로 작성되었고, 작성 통계별 성격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조사 대상이 다르므로 수록된 지표별 청소년의 대상 연령은 차이가 있음

※ 수록된 지표의 '청소년' 대상 연령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망원인통계」 : 9~24세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경제활동인구조사」 : 15~29세
- 통계청, 「사회조사」 : 13~24세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망원인통계」 : 9~24세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초·중·고등학교 학생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초(4~6학년)·중·고등학교 학생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상담실적」 : 9-24세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13-24세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 20~24세, 25~29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10대, 20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 10~19세
- 교육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 초·중·고등학교 학생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중·고등학교 학생
-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 18세 이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 초·중·고등학교 학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초(4~6학년)·중·고등학교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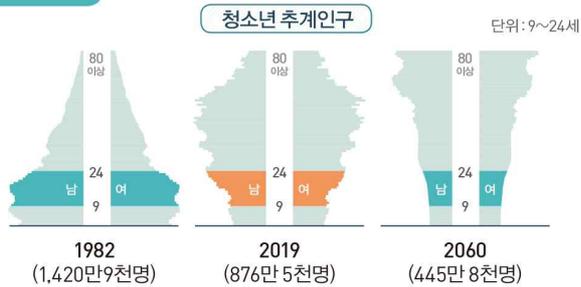
□ 「2019 청소년 통계」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 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 청소년 통계



인구



다문화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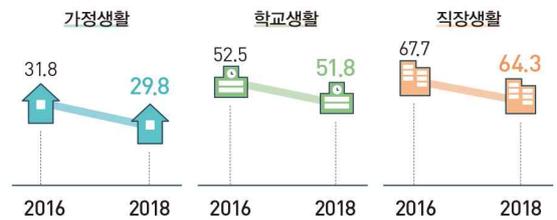


건강

건강관리(아침·수면·운동)



스트레스



학습·교육

학교생활 만족도(2018)



여가

인터넷 주평균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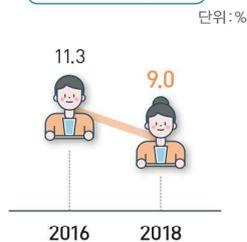


경제활동

고용률·실업률



아르바이트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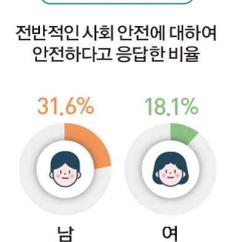


안전·행동

흡연율·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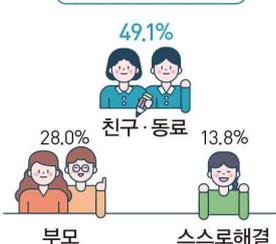


안전인식(2018)



관계·의식

고민상담대상(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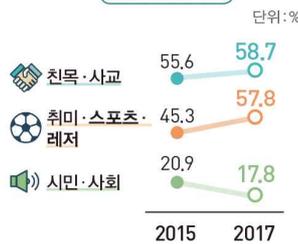


관계망(2017)



사회참여

단체 참여율



지방선거 투표율



목 차

□ 2019 청소년 통계 [요약]	1
□ 2019 청소년 통계	5
I. 인구	5
1. 인구추이	5
2. 학령인구	6
3. 다문화학생	7
II. 건강	8
4. 비만율	8
5. 스트레스	9
6. 청소년 고민	10
7. 우울감 경험률	11
8. 건강 평가	12
9. 건강관리	13
10. 사망원인	14
III. 학습·교육	15
11. 학교생활 만족도	15
12.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 목적	16
13. 학습 동기	17
14. 학습시간	18
15. 사교육	19
16. 진학률 및 취업률	20
IV. 여가	21
17. 여가활동 시간	21
18. 인터넷 이용	22
19. 인터넷 서비스 이용	23

V. 경제활동	24
20. 고용동향	24
21. 직업별 취업자	25
22. 취업 경로	26
23. 임금수준	27
24. 아르바이트	28
VI. 안전·행동	29
25. 안전사고 사망률	29
26. 소년범죄	30
27. 가출	31
28. 유해매체 이용	32
29. 스마트폰 과의존	33
30. 흡연 및 음주	34
31. 청소년 상담(1388) 실적	35
3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36
33. 사회의 불안요인	37
VII. 관계 및 의식	38
34. 가족 관계 만족도	38
35. 사회적 관계망	39
36.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40
37. 자아 존중감	41
38. 양성평등 의식	42
39. 인권 의식	43
40. 사회관	44
VIII. 사회참여	45
41. 사회에 대한 신뢰도 및 관심도	45
42. 단체 참여	46
43. 투표 참여	47
IX. 통계표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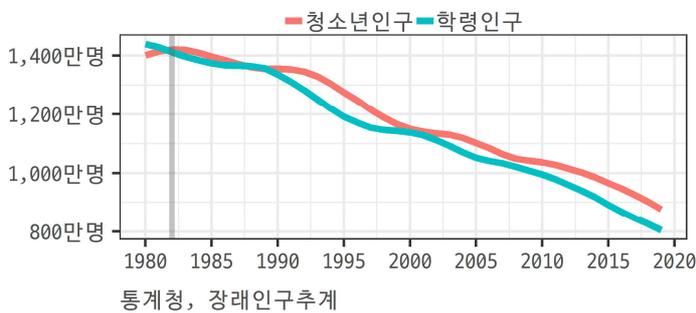
2019 청소년 통계 (요약)

◆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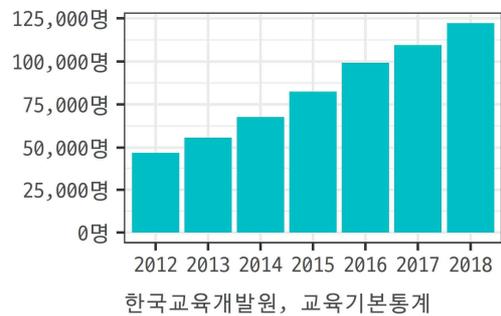
2019년 청소년인구는 876만5천명이며 학령인구는 향후 10년간 약 180만명 감소

- 2019년 청소년인구(9~24세)는 876만5천명으로 1982년 정점(1,420만9천명)을 찍은 후 감소 중이며, 학령인구(6~21세)는 804만7천명으로 2029년에는 624만9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2018년 다문화학생은 전년(10만9천명)보다 11.7% 증가한 12만2천명으로 다문화 학생의 비중(2.2%)이 전체 학생의 2%대에 진입

[인구추이]



[다문화학생 추이]



◆ 건강

2년 전보다 규칙적 운동은 증가한 반면, 아침식사와 적정수면은 감소

- 2018년 초중고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25.0%(과체중 10.6%, 비만 14.4%)로 2017년 23.9%(과체중 10.3%, 비만 13.6%)보다 1.1%p 증가함
-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년 전(2016년)보다 증가한 반면, 「아침식사」를 하는 청소년과 「적정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함

	아침 식사를 함(↓)	적정수면을 유지(↓)	규칙적 운동을 함(↑)
2016 (%)	57.7	71.9	35.0
2018 (%)	53.1	71.5	35.6

- 2018년 13~24세 청소년의 45.0%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2년 전(46.2%)보다 1.2%p 감소함
- 2018년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청소년은 72.0%로 2년 전(70.4%)보다 1.6%p 증가함

◆ 학습 ·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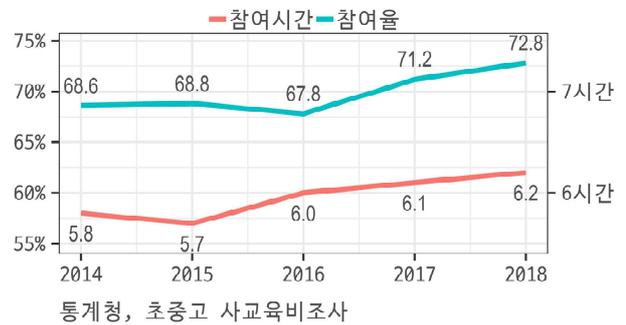
2018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58.0%로 2년전보다 4.7%p 증가

- 2018년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58.0%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2년 전(53.3%)보다 4.7%p 증가함
- 2018년 대학진학률은 69.7%로 전년(68.9%)보다 0.8%p 증가함
 - 성별로는 남자 65.9%, 여자 73.8%로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7.9%p 높음
- 2018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각각 72.8%, 6.2시간으로 전년 (71.2%, 6.1시간)보다 각각 1.7%p, 0.1시간 증가함

[학교생활 만족도(만족한다)]



[사교육참여율]



◆ 여가 · 경제활동

인터넷 이용시간(주평균)은 전년보다 10대는 54분, 20대는 36분 증가함

- 2018년 10대 청소년은 일주일에 평균 17시간48분(일평균 2시간32분), 20대는 24시간 12분(일평균 3시간27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시간(주평균)은 최근 6년 동안 지속적 증가 추세임

주당 이용시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대 (시간)	14.1	14.4	14.5	15.4	16.9	17.8
20대 (시간)	20.3	20.5	21.0	22.8	23.6	24.2

- 청년층(15~29세) 고용률(42.7%)은 전년보다 0.6%p 증가하고, 실업률(9.5%)은 0.3%p 감소함

청년층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용률 (%)	39.5	40.5	41.2	41.7	42.1	42.7
실업률 (%)	8.0	9.0	9.1	9.8	9.8	9.5

- 2018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중·고등학생) 비율은 9.0%로 2년전(11.3%) 보다 감소

◆ 안전 · 행동

중 ·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6.7%, 음주율은 16.9%로 전년보다 증가

- 2017년 안전사고로 사망한 청소년은 458명으로 전년대비 68명(12.9%) 감소하였으며, 사망률도 4.9명(인구 10만 명당)으로 감소 추세임

청소년 안전사고	2013	2014	2015	2016	2017
사망자수 (명)	652	684	561	526	458
사망률 (10만 명당 명)	6.4	6.9	5.7	5.5	4.9

- 2018년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6.7%, 음주율은 16.9%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흡연율 (%)	12.1	11.4	9.7	9.2	7.8	6.3	6.4	6.7
음주율 (%)	20.6	19.4	16.3	16.7	16.7	15.0	16.1	16.9

- 2018년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9.3%로 2016년(30.6%) 이후 감소 추세이며, 중학생이 가장 높음
 - 과의존위험군 비율(%) : 25.5('13) → 29.2('14) → 31.6('15) → 30.6('16) → 30.3('17) → 29.3('18)
 - 학교급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 22.8(초등학생) < 28.3(고등학생) < 34.0(중학생)

◆ 사회참여, 인식

청소년의 96.2%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고 생각

- 2018년 청소년(초 4·6학년·중·고등학생)의 96.2%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고 생각하며, 최근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은 개선되고 있음
 -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 93.5('14) → 93.9('15) → 93.9('16) → 95.5('17) → 96.2('18)
- 2017년 13~24세 청소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5.38점*임
 - * 우리 사회는 전혀 믿을 수 없다(0점) ~ 우리 사회는 매우 믿을 수 있다(10점)
 -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수준은 평균 4.93점*임
 - *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전혀 관심 없다(0점) ~ 매우 관심 있다(10점)
- 최근 모든 투표에서 청소년(19세, 20대 전반) 투표참여율은 증가 추세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2007	2012	2017	2008	2012	2016	2010	2014	2018
19세 (%)	54.2	74.0	77.7	33.2	47.2	53.6	47.4	52.2	54.1
20대 전반 (%)	51.1	71.1	77.1	32.9	45.4	55.3	45.8	51.4	52.9

- 2017년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공정성, 인권존중, 다양성 인정에 대하여 각각 46.3%, 59.6%, 61.2%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인권존중과 다양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함

2019 청소년 통계

I. 인구

1. 인구추이

2019년 청소년(9~24세) 인구는 876만5천명으로
1982년(1,420만9천명)에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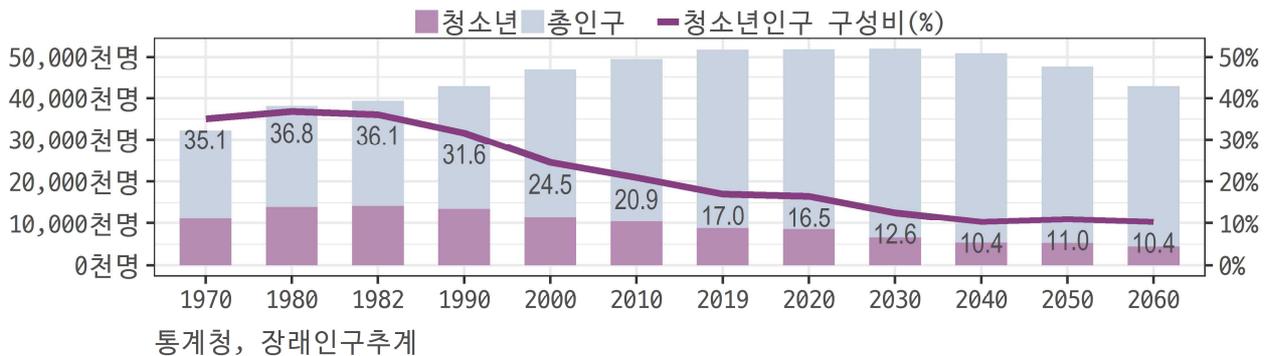
□ 2019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0만9천명으로 2028년까지 계속 증가 후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인구(9~24세)는 876만5천명으로 1982년(1,420만9천명)에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4,209천명(1982년, 정점) → 9,853천명(2014년, 1,000만 이하) → 4,985천명(2054년, 500만 이하)

□ 2019년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0%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10.4%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청소년 인구 중 남자는 457만9천명(52.2%), 여자는 418만6천명(47.8%)으로 남자의 구성비는 여자의 구성비보다 4.4%p 많음

< 청소년 인구 추이 >



【 청소년 인구 】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청소년 인구 (9~24세) ¹⁾	구성비	남자		여자	
				구성비 ²⁾	구성비 ²⁾		
1970	32,241	11,330	35.1	5,848	51.6	5,481	48.4
1980	38,124	14,015	36.8	7,216	51.5	6,799	48.5
1982	39,326	14,209	36.1	7,322	51.5	6,887	48.5
1990	42,869	13,553	31.6	6,991	51.6	6,563	48.4
2000	47,008	11,501	24.5	5,987	52.1	5,514	47.9
2010	49,554	10,370	20.9	5,468	52.7	4,902	47.3
2019	51,709	8,765	17.0	4,579	52.2	4,186	47.8
2020	51,927	6,543	12.6	3,362	51.4	3,181	48.6
2030	50,855	5,310	10.4	2,722	51.3	2,588	48.7
2040	47,745	5,235	11.0	2,685	51.3	2,550	48.7
2060	42,838	4,458	10.4	2,286	51.3	2,172	48.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 1) 청소년 기본법 기준에 따른 청소년 인구

2) 청소년 인구에 대한 각각의 구성비임

2. 학령인구

2019년 학령인구(6~21세)는 804만7천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18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학령인구(6~21세)는 804만7천명으로 총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2029년에는 624만9천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18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14,401천명(1980년, 정점) → 9,950천명(2010년, 1,000만 이하) → 4,994천명(2051년, 500만 이하)

○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 구성비는 1970년 17.7%에서 2019년 5.3%로
12.4%p가 감소하여 다른 학령 연령대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

- 1970년 대비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 구성비는 5.5%p, 고등학교 학령인구
(15~17세) 구성비는 3.7%p,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 구성비는 2.0%p 감소함

* 학교급별 학령인구 구성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70	17.7	8.0	6.5	6.9
2019	5.3	2.5	2.8	4.9

< 학령인구 및 구성비 >



【 학령인구 】

(단위 : 천명, %)

	총인구	학령인구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70	32,241	12,604	39.1	5,711	17.7	2,574	8.0	2,101	6.5	2,218	6.9
1980	38,124	14,401	37.8	5,499	14.4	2,599	6.8	2,671	7.0	3,632	9.5
1990	42,869	13,361	31.2	4,786	11.2	2,317	5.4	2,595	6.1	3,663	8.5
2000	47,008	11,383	24.2	4,073	8.7	1,869	4.0	2,166	4.6	3,275	7.0
2010	49,554	9,950	20.1	3,280	6.6	1,985	4.0	2,084	4.2	2,601	5.2
2019	51,709	8,047	15.6	2,765	5.3	1,318	2.5	1,454	2.8	2,511	4.9
2020	51,781	7,821	15.1	2,717	5.2	1,358	2.6	1,382	2.7	2,364	4.6
2029	51,941	6,249	12.0	1,831	3.5	1,240	2.4	1,350	2.6	1,828	3.5
2030	51,927	6,076	11.7	1,797	3.5	1,143	2.2	1,321	2.5	1,815	3.5
2040	50,855	5,204	10.2	2,085	4.1	1,017	2.0	916	1.8	1,186	2.3
2050	47,745	5,073	10.6	1,733	3.6	941	2.0	1,002	2.1	1,396	2.9
2060	42,838	4,188	9.8	1,398	3.3	793	1.9	832	1.9	1,164	2.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다문화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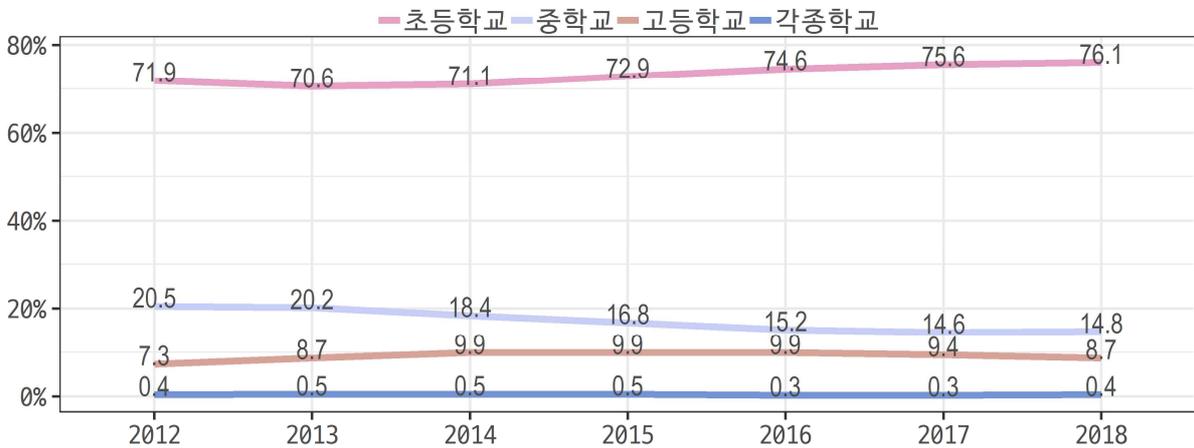
2018년 다문화학생은 12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2,825명(11.7%) 증가

□ 2018년 초중고 다문화학생은 12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함

○ 전체 학생 수와 학령인구(6~12세)는 감소 추세인 반면, 다문화학생은 최근 6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8년 다문화학생 비중이 2.2%를 차지함

□ 2018년 다문화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중은 76.1%, 중학생 14.8%, 고등학생 8.7%, 각종학교 학생 0.4%임

< 다문화학생 구성비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

【 다문화학생 현황 】

(단위 : 명, %)

연도	전체 학생 (천명) ¹⁾	다문화 학생수 ²⁾	구성비 ³⁾	전년 대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학생수	구성비 ⁴⁾	학생수	구성비 ⁴⁾	학생수	구성비 ⁴⁾	학생수	구성비 ⁴⁾
2012	6,730	46,954	0.7	-	33,740	71.9	9,627	20.5	3,409	7.3	178	0.4
2013	6,489	55,780	0.9	18.8	39,360	70.6	11,280	20.2	4,858	8.7	282	0.5
2014	6,294	67,806	1.1	21.6	48,225	71.1	12,506	18.4	6,734	9.9	341	0.5
2015	6,097	82,536	1.4	21.7	60,162	72.9	13,827	16.8	8,146	9.9	401	0.5
2016	5,891	99,186	1.7	20.2	73,972	74.6	15,080	15.2	9,816	9.9	318	0.3
2017	5,733	109,387	1.9	10.3	82,733	75.6	15,945	14.6	10,334	9.4	375	0.3
2018	5,593	122,212	2.2	11.7	93,027	76.1	18,068	14.8	10,688	8.7	429	0.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 주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재적 학생수
- 2) 국제결혼가정 학생(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
- 3) 다문화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 4) 다문화학생 중 구성비

II. 건강

4. 비만율

2018년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5.0%로 전년보다 1.1%p 증가함

□ 2018년 비만군 학생들의 비율은 25.0%이며, 과체중 10.6%, 비만 14.4%로 나타나 전년 23.9%(과체중 10.3%, 비만 13.6%)보다 1.1%p 증가함

- 학생들의 비만율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및 단맛음료 섭취율 증가로 인하여 전년보다 0.8%p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증가 추세임

- *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 16.7('16) → 20.5('17) → 21.4('18)
-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 : 27.1('16) → 33.7('17) → 34.7('18)
- 주3회 이상 단맛음료 섭취율(%) : 41.4('16) → 47.1('17) → 50.3('18)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대상

○ 학교급별로는 고등 남학생이 29.1%로 가장 높고, 초등 남학생(26.8%), 중등 남학생(26.7%), 고등 여학생(25.1%) 순으로 비만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생들의 비만율 >



교육부, 학생건강검사표본조사

【 체질량지수(BMI) 기준¹⁾ 비만율 】

(단위 : %)

		저체중군	정상군	비만군	비만율	
					과체중 ²⁾	비만 ³⁾
2016		5.9	71.2	22.9	10.0	12.9
2017		5.8	70.3	23.9	10.3	13.6
2018		5.5	69.5	25.0	10.6	14.4
초	남 자	4.9	68.3	26.8	11.3	15.5
	여 자	6.0	72.9	21.1	10.2	10.9
중	남 자	5.7	67.6	26.7	10.6	16.0
	여 자	4.8	72.9	22.4	9.9	12.4
고	남 자	6.3	64.6	29.1	10.7	18.4
	여 자	5.2	69.7	25.1	10.4	14.7

자료 : 교육부, 학생건강검사표본조사

주 : 1) 비만도 평가기준은 2017년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체질량지수 기준)를 적용

2)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BMI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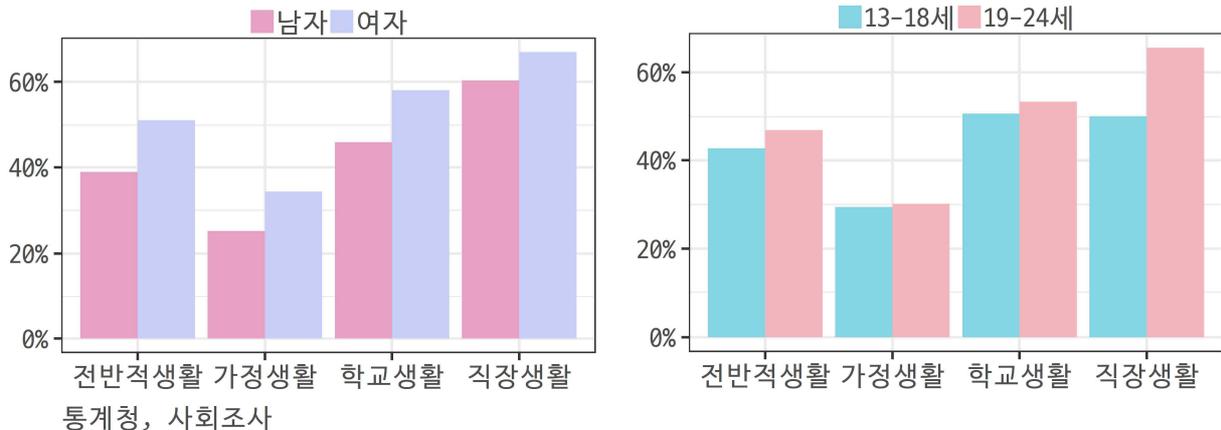
3)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BMI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95백분위수 이상

5. 스트레스

2018년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13~24세)은 45.0%로 2년 전(46.2%)보다 감소

- 2018년 13~24세 청소년의 45.0%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2년 전(46.2%)보다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직장생활」은 64.3%, 「학교생활」은 51.8%, 「가정생활」은 29.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2년 전보다 각각 3.4%p, 0.7%p, 2.0%p 감소함
- 성별로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에서는 여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자보다 12.2%p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13~18세는 「학교생활」에서, 19~24세는 「직장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2018) >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¹⁾ 】

(단위 : %)

	전반적인 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2016	46.2	31.8	52.5	67.7
2018	45.0	29.8	51.8	64.3
남 자	38.9	25.2	46.0	60.3
여 자	51.1	34.4	58.1	66.9
13~18세	42.7	29.5	50.7	50.1
19~24세	47.0	30.1	53.4	65.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을 합한 수치임

6. 청소년 고민

2018년 13~18세 청소년은 「공부(47.3%)」와 「외모(13.1%)」, 19~24세는 「직업(45.1%)」과 「공부(14.9%)」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함

- 우리나라 13세 이상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직업(30.2%)」이며, 그 다음으로 「공부(29.6%)」, 「외모(10.9%)」 순으로 나타남
- 2년 전보다 직업(1.3%p), 용돈부족(0.7%p), 건강(0.6%p)에 대한 고민은 늘고, 공부(-3.3%p), 가계경제(-1.0%p), 가정환경(-0.3%p)에 대한 고민은 줄어듦
-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은 「건강」, 「용돈」, 「공부」에서, 여자 청소년은 「외모」, 「가정환경」, 「직업」, 「친구」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3~18세 청소년은 「공부(47.3%)」와 「외모(13.1%)」, 19~24세는 「직업(45.1%)」과 「공부(14.9%)」에 대해 고민을 가장 많이 함

<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2018) >



【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13~24세) 】

(단위 : %)

	계	외모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가정 환경	가 계 경 제 어 려 움	용 돈 부 족	공부 (성적, 적성)	직업	친구 (우정)	이성 교제 (성문제)	기타 ¹⁾	고민 없음
2016	100.0	10.7	4.8	2.0	5.8	4.2	32.9	28.9	2.2	1.6	1.7	5.2
2018	100.0	10.9	5.4	1.7	4.8	4.9	29.6	30.2	2.5	1.8	1.8	6.4
남자	100.0	7.9	6.0	1.6	5.0	5.4	31.0	28.7	2.4	2.3	2.5	7.2
여자	100.0	13.8	4.9	1.8	4.6	4.3	28.2	31.7	2.6	1.4	1.1	5.5
13~18세	100.0	13.1	4.0	1.6	2.4	5.8	47.3	12.3	4.5	1.4	2.4	5.3
19~24세	100.0	9.0	6.6	1.9	6.8	4.2	14.9	45.1	0.8	2.2	1.3	7.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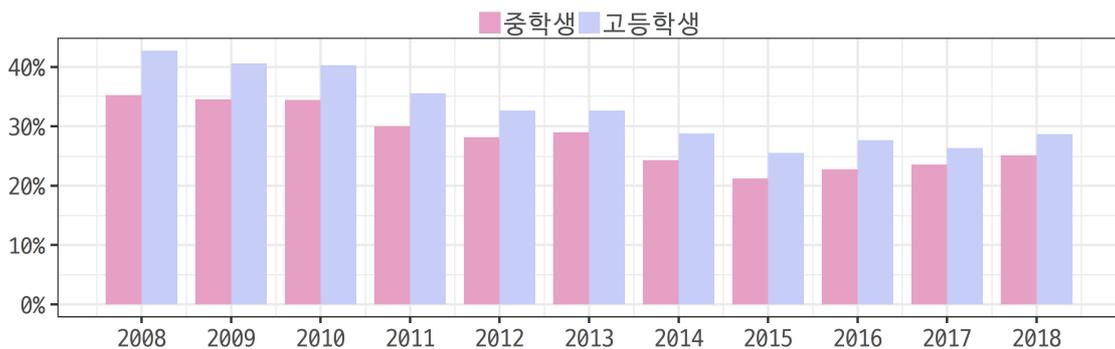
주 : 1) '흡연, 음주', '학교·학원 폭력', '인터넷 중독' 포함

7. 우울감 경험률

2018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1%로 전년(25.1%)보다 2.0%p 증가함

- 2018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1%로 2017년(25.1%)보다 2.0%p 높게 나타났으나, 10년 전인 2008년(38.8%) 대비 11.7%p 감소함
- 성별로는 남학생 21.1%, 여학생 33.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5%p 높았으며,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남학생(%) : 중1(16.2) < 중2(19.3) < 중3(21.2), 고1(21.3) < 고2(22.7) < 고3(24.5)
 - 여학생(%) : 중1(27.8) < 중2(32.5) < 중3(35.0), 고1(32.3) < 고2(35.6) < 고3(36.6)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5.2%)보다 고등학생(28.7%)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¹⁾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8.8	37.5	37.4	32.8	30.5	30.9	26.7	23.6	25.5	25.1	27.1
남 학생	34.0	32.1	32.7	28.0	25.5	25.2	22.2	19.7	20.9	20.3	21.1
여 학생	44.3	43.5	42.6	38.2	36.0	37.1	31.6	27.8	30.5	30.3	33.6
중학생	35.2	34.5	34.4	30.0	28.2	29.0	24.4	21.2	22.7	23.5	25.2
고등학생	42.7	40.6	40.3	35.5	32.6	32.6	28.8	25.6	27.7	26.4	28.7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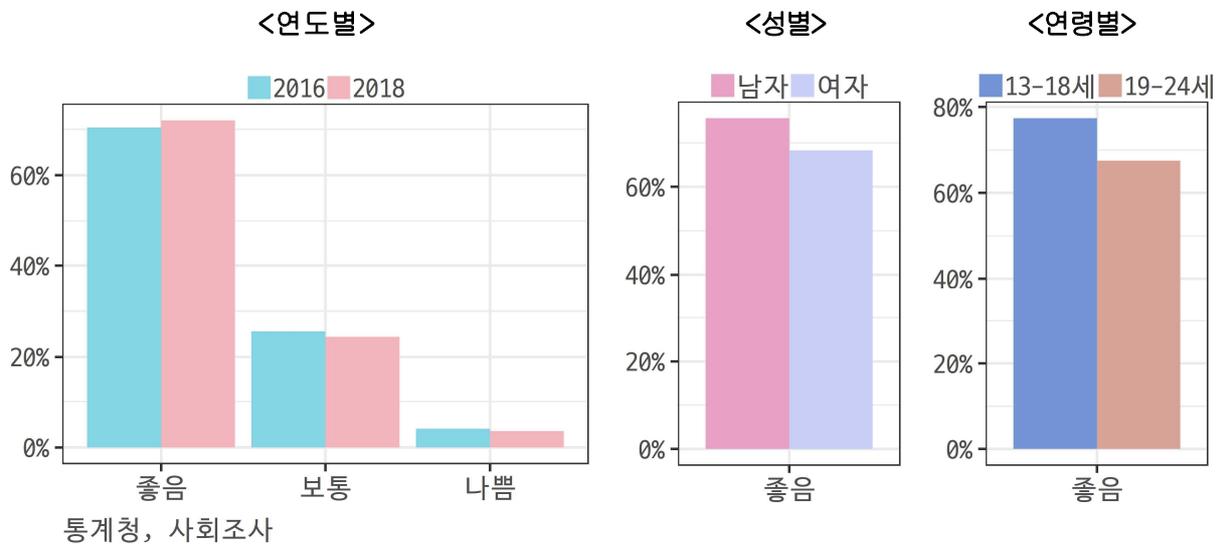
주 : 1)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퍼하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8. 건강 평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 고 평가하는 청소년은 72.0%로 2년 전보다 1.6%p 증가함

- 2018년 13~24세 청소년 중 72.0%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 고 생각하며, 2년 전(70.4%) 보다 1.6%p 증가함
- 성별로는 남자(75.6%)가 여자(68.3%)보다 「좋다」 고 평가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 중 77.4%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 고 생각했으며, 19~24세 청소년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 고 생각한 비율은 67.5%로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게 평가함

< 건강평가 >



【 건강평가(13 ~ 24세) 】

(단위 : %)

	계	좋 다	매 우		보 통	나쁘 다	매 우	
			좋	다			편 이 다	나
2016	100.0	70.4	24.2	46.2	25.6	4.1	3.7	0.3
2018	100.0	72.0	23.0	49.0	24.4	3.6	3.5	0.2
남 자	100.0	75.6	27.3	48.3	20.7	3.7	3.5	0.2
여 자	100.0	68.3	18.6	49.7	28.1	3.6	3.5	0.1
13~18세	100.0	77.4	28.9	48.4	20.6	2.0	1.9	0.1
19~24세	100.0	67.5	18.0	49.4	27.6	5.0	4.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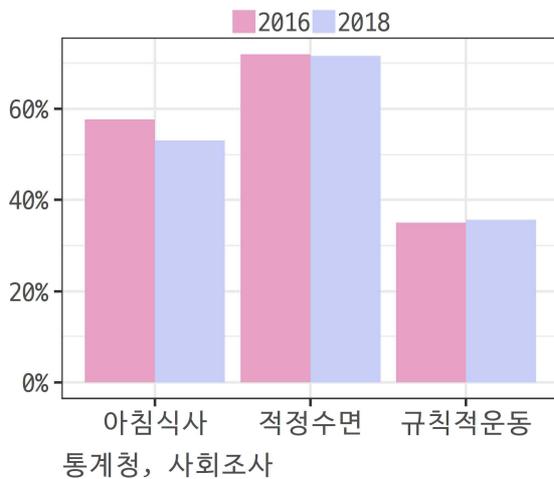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9. 건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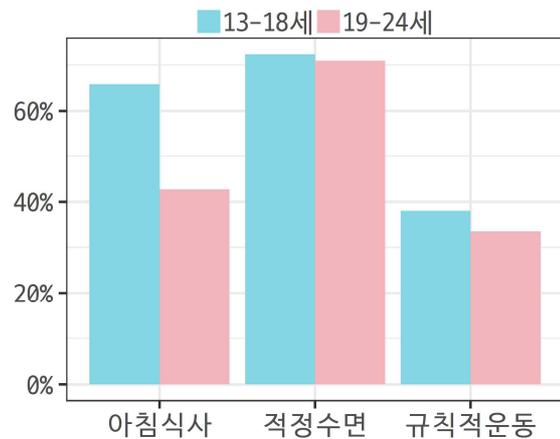
2018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청소년은 2년 전보다 0.6%p 증가한 반면, 아침식사와 적정수면은 각각 4.6%p, 0.4%p 감소함

- 2018년 13~24세 청소년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10명 중 5명(53.1%)은 아침 식사를 하고, 7명(71.5%)은 하루 6~8시간 적정 수면을 하는 반면, 「규칙적 운동」은 4명(35.6%)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년 전(2016년)보다 0.6%p 증가한 반면, 「아침식사」를 하는 청소년과 「적정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4.6%p, 0.4%p 감소함
- 연령대별로 보면, 「아침식사」를 하는 청소년은 13~18세(65.8%)가 19~24세(42.7%)보다 23.1%p 많았으며, 「적정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청소년 건강관리(한다) >



< 연령별 청소년 건강관리(한다)(2018) >



【 청소년 건강관리 】

(단위 : %)

	아침식사		적정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한 다	하 지 않는다	한 다	하 지 않는다	한 다	하 지 않는다
2016	57.7	42.3	71.9	28.1	35.0	65.0
2018	53.1	46.9	71.5	28.5	35.6	64.4
13~18세	65.8	34.2	72.3	27.7	38.0	62.0
19~24세	42.7	57.3	70.9	29.1	33.5	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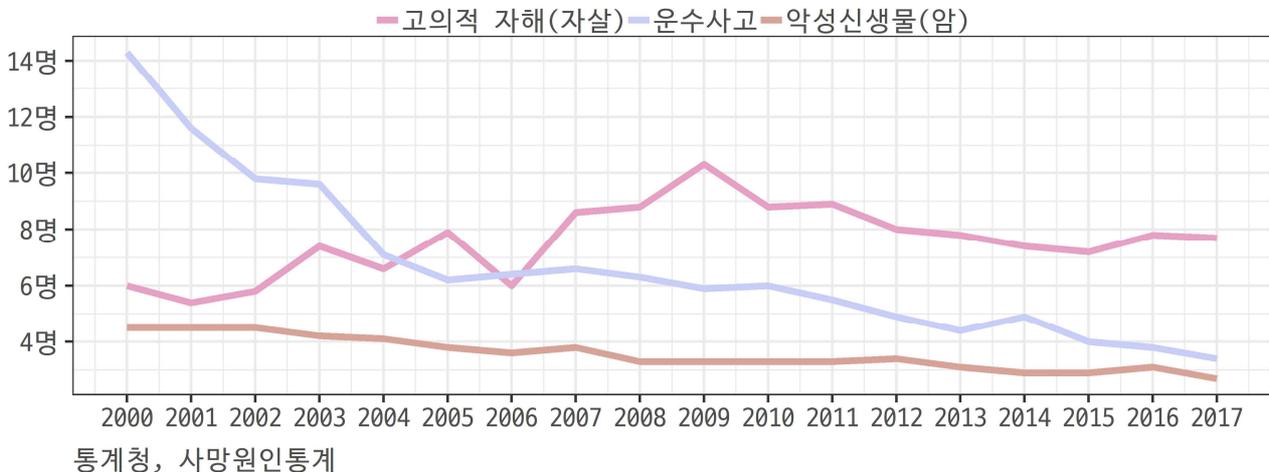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10. 사망원인

2017년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순임

- 2017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고, 다음은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고의적 자해(자살)」은 인구 10만명당 7.7명, 「운수사고」 3.4명, 「악성신생물(암)」 2.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1명, 0.4명, 0.4명 감소함
-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2009년 사망률 정점(10.3명)을 기록 후 감소하다가, '16년 증가(0.6명) 후 '17년 소폭(0.1명) 감소함

< 청소년 사망원인 >



【 청소년 사망원인 】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1위	2위	3위
2000	운수사고 (14.3)	고의적 자해(자살) (6.0)	악성신생물(암) (4.5)
2006	운수사고 (6.4)	고의적 자해(자살) (6.0)	악성신생물(암) (3.6)
2007	고의적 자해(자살) (8.6)	운수사고 (6.6)	악성신생물(암) (3.8)
2010	고의적 자해(자살) (8.8)	운수사고 (6.0)	악성신생물(암) (3.3)
2015	고의적 자해(자살) (7.2)	운수사고 (4.0)	악성신생물(암) (2.9)
2016	고의적 자해(자살) (7.8)	운수사고 (3.8)	악성신생물(암) (3.1)
2017	고의적 자해(자살) (7.7)	운수사고 (3.4)	악성신생물(암) (2.7)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9~24세 청소년 대상임

주 : () 안의 수치는 사망률, 사망률 = (사망자수/당해연도 연앙인구)*10만명

Ⅲ. 학습 · 교육

11. 학교생활 만족도

2018년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2년 전보다 증가

- 2018년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58.0%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2년 전 보다 만족하는 정도는 4.7%p 증가함
- 학교생활 부문별 만족도는 「교우관계」가 76.6%, 「교사와의 관계」는 61.1%로 높은 반면, 「교육방법」은 44.7%로 비교적 낮음
- 학교급별로는 모든 부문에서 중학생의 만족도가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2018) >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¹⁾ 】

(단위 : %)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2016	53.3	48.0	43.2	73.5	58.8
2018	58.0	53.1	44.7	76.6	61.1
중 학생	61.7	56.1	46.4	78.8	62.6
고등학생	55.6	51.0	43.6	75.1	6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12.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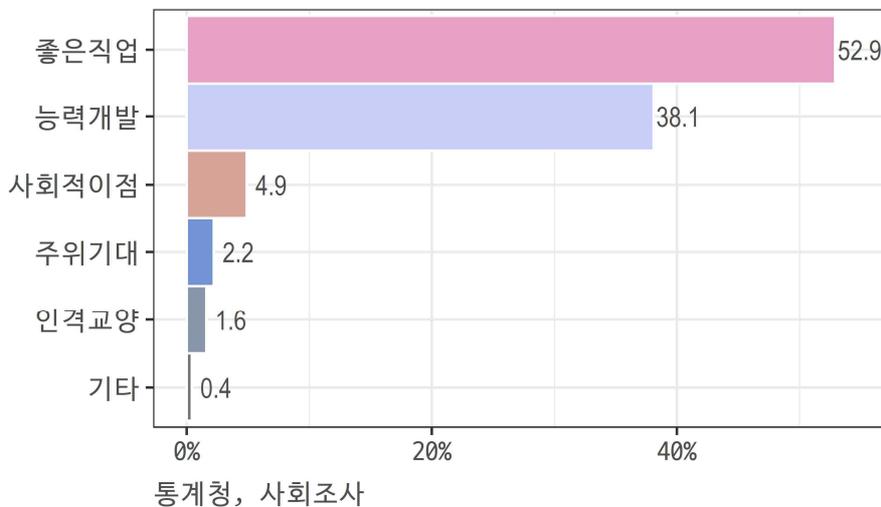
2018년 청소년(13~24세)의 52.9%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함

□ 2018년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주된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52.9%,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38.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능력과 소질개발」을 위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기대 교육목적 우선순위는 13~18세, 19~24세 모두 「좋은 직업」, 「능력과 소질 개발」, 「결혼, 친구관계」 순으로 동일함

< 학생¹⁾의 기대하는 교육목적(2018) >



【 학생¹⁾의 기대하는 교육 목적 】

(단위 : %)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	주위의 기대 때문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 유리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	기타
2016	53.1	37.2	3.4	3.6	2.3	0.3
2018	52.9	38.1	2.2	4.9	1.6	0.4
남 자	54.1	36.6	2.1	5.1	1.6	0.5
여 자	51.5	39.8	2.3	4.6	1.5	0.3
13~18세	53.4	38.1	2.0	4.6	1.4	0.5
19~24세	52.2	38.1	2.4	5.2	1.8	0.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대학(교)(4년제 미만)'이상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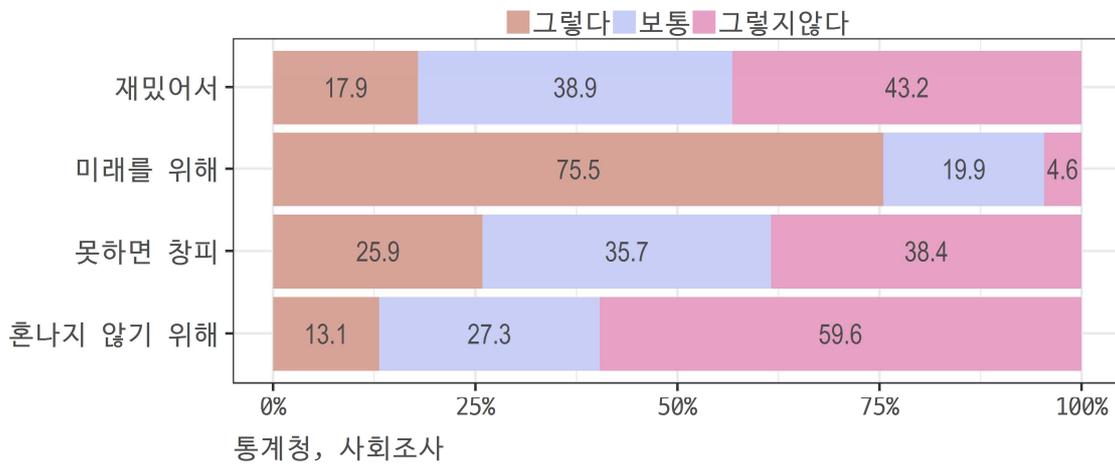
13. 학습 동기

2018년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습 동기는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가 75.5%로 가장 높음

□ 2018년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 (75.5%)」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못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는 25.9%, 「재미있어서」는 17.9%,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는 13.1%로 나타남

< 학생의 학습 동기 >



【 중·고등학생의 학습 동기(2018) 】

(단위 : %)

	계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약간	전혀				
재미있어서	100.0	17.9	3.8	14.1	38.9	43.2	30.1	13.0
중학교	100.0	19.3	5.0	14.3	41.5	39.2	28.9	10.4
고등학교	100.0	17.0	3.1	13.9	37.2	45.8	31.0	14.8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	100.0	75.5	26.8	48.7	19.9	4.6	3.4	1.3
중학교	100.0	74.8	28.5	46.3	21.1	4.1	3.2	1.0
고등학교	100.0	75.9	25.7	50.2	19.1	5.0	3.5	1.4
못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100.0	25.9	4.5	21.4	35.7	38.4	26.6	11.8
중학교	100.0	27.2	4.6	22.6	35.2	37.6	25.9	11.7
고등학교	100.0	25.1	4.5	20.6	36.0	38.9	27.0	11.9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	100.0	13.1	2.2	10.9	27.3	59.6	35.0	24.5
중학교	100.0	16.1	2.8	13.3	27.8	56.1	33.6	22.6
고등학교	100.0	11.1	1.9	9.3	27.0	61.9	36.0	25.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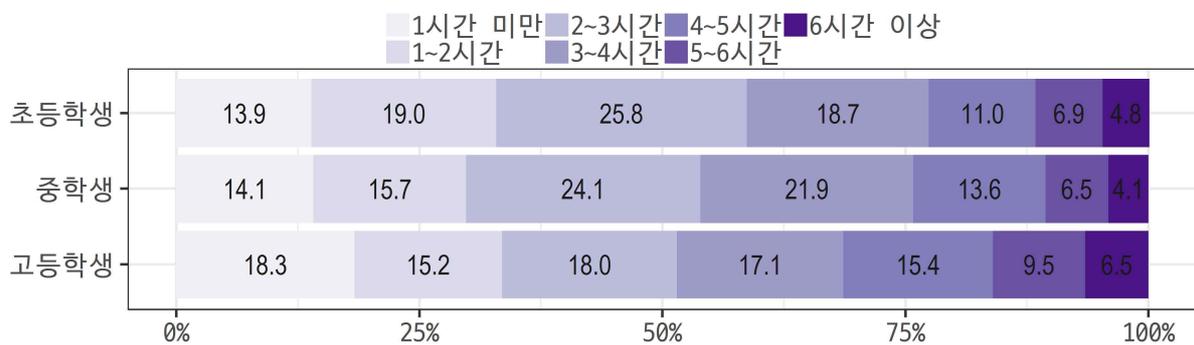
14. 학습시간

2018년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학습시간은 「2~3시간(22.3%)」이 가장 많고, 그 다음 「3~4시간(19.1%)」 순임

□ 2018년 초중고 학생은 평일 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2~3시간」 공부하는 비율이 2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시간(19.1%)」, 「1~2시간(16.5%)」, 「1시간 미만(15.6%)」 순으로 나타남

○ 초·중학생은 「2~3시간」 공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1시간 미만」 공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 정규 수업시간 제외 학습시간(201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정규 수업시간 제외 학습시간¹⁾ 】

(단위 : %)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
2014	15.0	18.2	20.4	16.4	13.2	9.6	7.2
2015	16.4	16.9	20.1	19.0	13.1	8.6	6.1
2016	15.1	15.7	19.9	19.5	13.7	9.7	6.5
2017	14.5	17.7	20.9	19.8	13.3	7.7	6.2
2018	15.6	16.5	22.3	19.1	13.5	7.8	5.2
초등학교	13.9	19.0	25.8	18.7	11.0	6.9	4.8
중학교	14.1	15.7	24.1	21.9	13.6	6.5	4.1
고등학교	18.3	15.2	18.0	17.1	15.4	9.5	6.5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임

주 : 1)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됨

15. 사교육

사교육 참여율(72.8%) 및 참여시간(6.2시간)은 전년보다 각각 1.7%p, 0.1시간 증가함

- 2018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낮아짐
 - * 초등학교(82.5%) > 중학교(69.6%) > 고등학교(58.5%)
- 전년대비 사교육 참여율은 1.7%p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2%p, 2.6%p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0.1%p 감소함
-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2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중학교 6.5시간, 고등학교 5.3시간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실태 】

(단위 : %, 시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율	참여시간
2015	68.8	5.7	80.7	6.4	69.4	6.4	50.2	4.1
2016	67.8	6.0	80.0	6.8	63.8	6.2	52.4	4.6
2017	71.2	6.1	82.7	6.7	67.4	6.4	55.9	4.9
2018	72.8	6.2	82.5	6.5	69.6	6.5	58.5	5.3
전년대비 (%p, 시간)	1.7	0.1	-0.1	-0.2	2.2	0.1	2.6	0.4

자료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53.4%이며,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42.5%로 전년보다 각각 1.2%p, 1.4%p 증가함
- 일반교과별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영어(1.1%p) > 국어(1.0%p) > 수학(0.9%p) 순으로 증가함

【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

(단위 : %)

	참여율	일반교과	일반교과				사회·과학	예체능 취미교양
			국어	영어	수학	사·과		
2015	68.8	54.7	17.3	40.8	42.5	9.7	34.6	
2016	67.8	51.0	17.7	39.1	42.3	10.4	37.8	
2017	71.2	52.2	18.9	39.8	43.3	11.2	41.1	
2018	72.8	53.4	19.9	40.9	44.2	11.2	42.5	
초등학교	82.3	55.5	24.9	40.7	42.7	12.5	66.4	
중학교	66.4	59.3	14.1	51.1	54.3	13.0	24.7	
고등학교	55.0	45.5	16.0	32.5	38.0	7.6	15.9	

자료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16. 진학을 및 취업률

2018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소폭 상승하고 취업률은 감소함

-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률은 69.7%로 전년보다 0.8%p 증가함
- 성별로는 남자 65.9%, 여자 73.8%로 남녀 학생 간의 격차가 7.9%p 까지 벌어짐
- 진학률은 2009년 77.8%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소폭 상승함

* 대학진학률(%) : 77.8('09) → 72.5('11) → 70.7('13) → 70.8('15) → 68.9('17) → 69.7('18)

【 대학진학률¹⁾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체	72.5	71.3	70.7	70.9	70.8	69.8	68.9	69.7
남 자	70.2	68.6	67.4	67.6	67.3	66.3	65.3	65.9
여 자	75.0	74.3	74.5	74.6	74.6	73.5	72.7	73.8
차이(남-여)	-4.8	-5.7	-7.1	-7.0	-7.3	-7.2	-7.4	-7.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국내·외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재수생 미포함)

-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30.7%, 2017년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은 66.2%로 각각 전년보다 4.0%p, 1.5%p 하락함
- 전문대학 졸업 후 취업률(69.8%)과 일반대학 졸업 후 취업률(62.6%) 모두 전년보다 각각 0.8%p, 1.7%p 하락하였으며,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차이는 7.2%p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임

【 취업률 】

(단위 : %, %p)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 ¹⁾	대학 졸업 후 취업률 ²⁾	전문대학	대학 ³⁾	차이
2011	23.3	67.6	67.8	65.5	2.3
2012	29.3	68.1	68.1	66.0	2.1
2013	30.2	67.4	67.9	64.8	3.1
2014	33.5	67.0	67.8	64.5	3.3
2015	34.3	67.5	69.5	64.4	5.1
2016	33.9	67.7	70.6	64.3	6.3
2017	34.7	66.2	69.8	62.6	7.2
2018	30.7	-	-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주 : 1) (당해년도 졸업자 중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 × 100

2) (당해년도 졸업자 중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 100

3) 일반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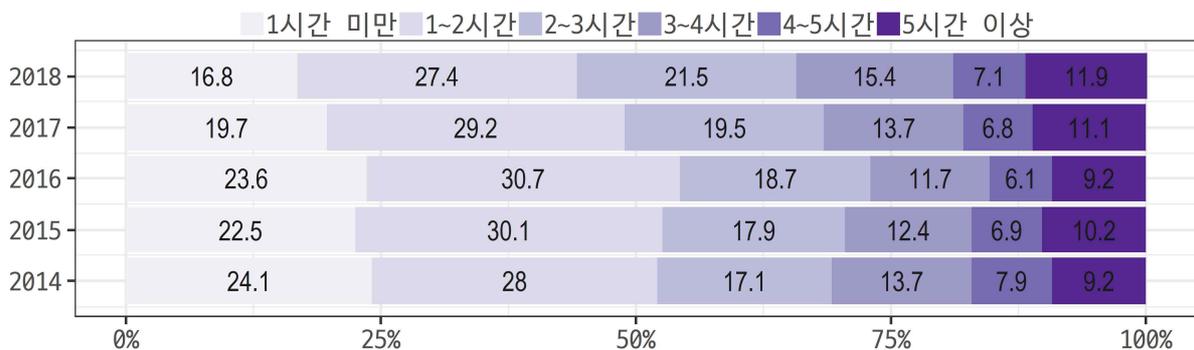
IV. 여가

17. 여가활동 시간

초중고 학생의 평일 여가활동 시간은 2시간 이상은 증가, 2시간 미만은 감소함

- 2018년 초중고 학생의 평일 여가활동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이 2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3시간(21.5%)」, 「1시간 미만(16.8%)」, 「3~4시간(15.4%)」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여가활동 시간은 2시간 미만은 감소하고, 2시간 이상은 증가함
- 평일 여가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청소년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14.3%, 중학생 11.2%, 고등학생 23.3%로 고등학생이 가장 여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평일 여가활동 시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평일 여가활동 시간¹⁾ 】

(단위 : %, %p)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2014	24.1	28.0	17.1	13.7	7.9	9.2
2015	22.5	30.1	17.9	12.4	6.9	10.2
2016	23.6	30.7	18.7	11.7	6.1	9.2
2017	19.7	29.2	19.5	13.7	6.8	11.1
2018	16.8	27.4	21.5	15.4	7.1	11.9
초등학생	14.3	20.2	20.1	17.3	9.7	18.3
중학생	11.2	29.2	22.9	17.4	7.7	11.5
고등학생	23.3	31.5	21.5	12.2	4.5	7.0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임

주 : 1) 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하루 여가(자유)시간

18. 인터넷 이용

인터넷 이용시간은 전년보다 10대는 54분, 20대는 36분 증가함

□ 2018년 10대 청소년은 일주일에 평균 17시간48분(일평균 2시간32분), 20대는 24시간12분(일평균 3시간27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은 최근 6년 동안 지속적 증가 추세임

* 인터넷 주평균 이용시간(시간)

- 10대 : 14.1('13) → 14.4('14) → 14.5('15) → 15.4('16) → 16.9('17) → 17.8('18)

- 20대 : 20.3('13) → 20.5('14) → 21.0('15) → 22.8('16) → 23.6('17) → 24.2('18)

□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가 「하루에 1회 이상」인 경우가 10대는 98.1%, 20대는 99.9%로 10~20대 청소년은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 인터넷 평균 이용¹⁾ 시간 및 빈도 】

(단위 : 시간, %)

	주평균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 빈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2016	10대	15.4	93.9	5.6	0.3	0.2
	20대	22.8	99.6	0.4	0.0	-
2017	10대	16.9	98.1	0.9	1.0	-
	20대	23.6	100.0	-	0.0	-
2018	10대	17.8	98.1	1.2	0.7	-
	20대	24.2	99.9	0.1	0.0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 1)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이용자이며, 이동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IPTV,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모두 포함

□ 2018년 10~20대 청소년들은 「커뮤니케이션(인스턴트메신저·SNS·이메일)」, 「여가활동(음악듣기·동영상보기·온라인게임)」, 「자료 및 정보 획득(정보검색·신문읽기)」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10대는 교육·학습, 20대는 직업·직장을 위한 이용률이 높음

【 인터넷 이용 용도¹⁾(복수응답, 2018) 】

(단위 : %)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활동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10대	98.2	95.6	99.5	70.1	83.8	7.7
20대	100.0	100.0	99.7	90.9	65.5	59.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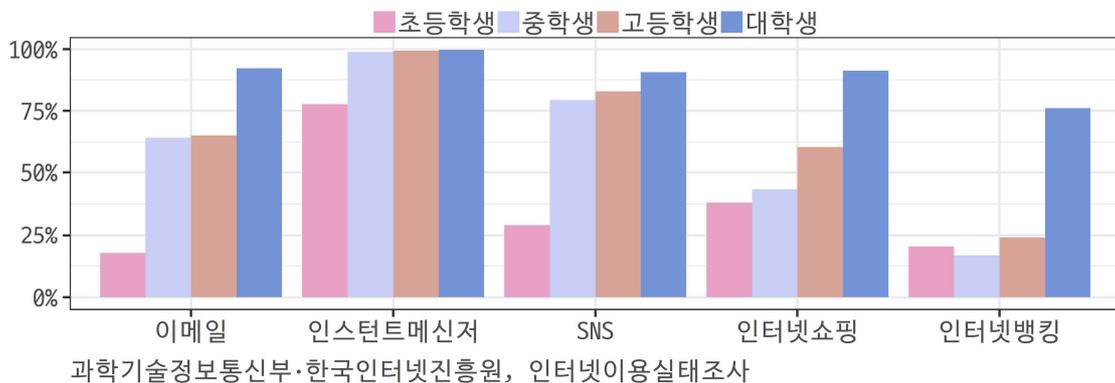
주 : 1)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19. 인터넷 서비스 이용

청소년들은 인터넷 서비스 중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함

- 2018년 청소년들은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중 카카오톡·페이스북 메신저·라인 등의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은 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청소년은 인스턴트 메신저와 SNS 매체로 각각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이용함

<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2018) >



【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¹⁾(복수응답, 2018) 】

(단위 : %)

	이메일	주이용 서비스				주이용 서비스					인터넷 쇼핑 ³⁾	인터넷뱅킹 ³⁾
		인스턴트 메신저 ²⁾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스토리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초등학생	17.6	77.7	98.9	16.7	6.0	29.0	70.3	47.9	37.0	16.6	38.0	20.2
중 학생	64.2	99.0	99.3	46.6	13.2	79.4	84.3	38.2	58.0	18.2	43.2	16.6
고등학생	65.1	99.4	99.4	50.4	15.6	82.8	85.6	39.8	59.9	13.8	60.4	24.0
대 학생	92.4	99.8	98.7	56.5	18.3	90.9	86.4	41.4	61.4	14.9	91.5	76.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 1) 최근 1년 이용자

2)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라인, 네이버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행아웃 등이 포함

3)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은 12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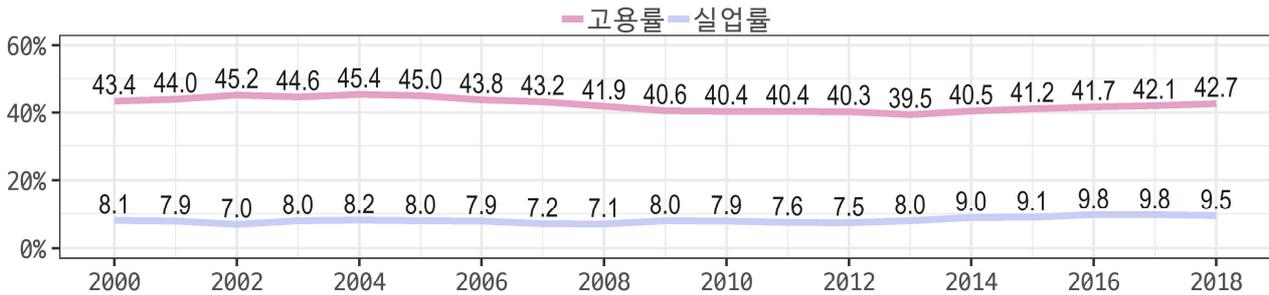
V. 경제활동

20. 고용동향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7%로 전년보다 0.6%p 증가, 실업률은 전년보다 0.3%p 떨어짐

- 2018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7%로 전년보다 0.6%p 증가함
 - 청년층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4년부터 증가 추세임
 - 연령대별 고용률은 15~24세가 26.2%로 전년대비 1.0%p 감소한 반면, 25~29세는 70.2%로 전년대비 1.5%p 증가함
- 2018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p 감소함
 - 2013년 이후 청년층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소폭 감소(-0.3%p)
 - 연령대별 실업률은 15~24세는 10.5%로 전년보다 0.2%p 증가한 반면, 25~29세는 8.8%로 전년보다 0.7%p 감소함

<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 】

(단위 : %, %p)

	고용률 ¹⁾			실업률 ²⁾		
	15~24세	25~29세	합계	15~24세	25~29세	합계
2011	23.1	69.6	40.4	7.6	6.4	9.7
2012	24.1	69.2	40.3	7.5	6.6	9.0
2013	23.9	68.8	39.5	8.0	7.1	9.3
2014	25.6	69.0	40.5	9.0	8.3	10.0
2015	26.7	68.9	41.2	9.1	8.1	10.5
2016	26.9	69.5	41.7	9.8	9.2	10.7
2017	27.2	68.7	42.1	9.8	9.5	10.3
2018	26.2	70.2	42.7	9.5	8.8	10.5
전년대비	-1.0	1.5	0.6	-0.3	-0.7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청년층(15~29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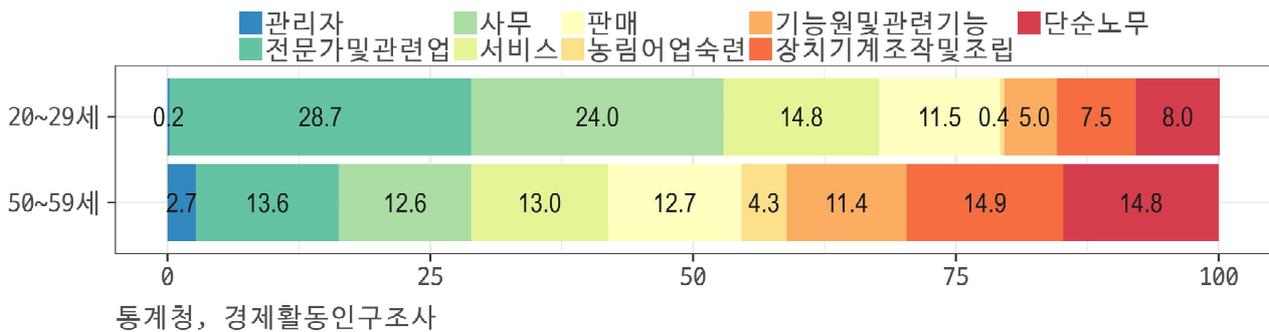
2)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1. 직업별 취업자

2018년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20대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8.7%)」, 50대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9%)」가 가장 많음

- 2018년 20~29세 취업자 수는 366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9천명 증가하였고, 부모세대인 50~59세는 634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4만4천명 증가함
-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식세대(20~29세)와 부모세대(50~59세)의 근무하는 직종 순위에 차이를 보임
 - * 자식세대(20대)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8.7%) → 사무종사자(24.0%) → 서비스종사자(14.8%)
 - 부모세대(50대)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9%) → 단순노무종사자(14.8%)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3.6%)
- 전년보다 자식세대는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는 증가하고, 판매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감소함
 - 부모세대는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는 증가하고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소함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2018) >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 천명, %, %p)

	연도	취업자 수	직업별 구성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29세	2016	3,664	0.2	29.4	23.9	13.9	11.9	0.5	4.6	8.3	7.4
	2017	3,660	0.2	29.2	23.9	14.3	12.2	0.5	4.6	7.7	7.6
	2018	3,669	0.2	28.7	24.0	14.8	11.5	0.4	5.0	7.5	8.0
	증감	9	0.0	-0.5	0.1	0.5	-0.7	-0.1	0.4	-0.2	0.4
50~59세	2016	6,150	2.5	13.1	11.4	13.2	12.0	4.4	11.9	15.9	15.5
	2017	6,302	2.4	13.6	11.9	12.8	12.5	4.2	11.9	15.7	15.1
	2018	6,346	2.7	13.6	12.6	13.0	12.7	4.3	11.4	14.9	14.8
	증감	44	0.3	0.0	0.7	0.2	0.2	0.1	-0.5	-0.8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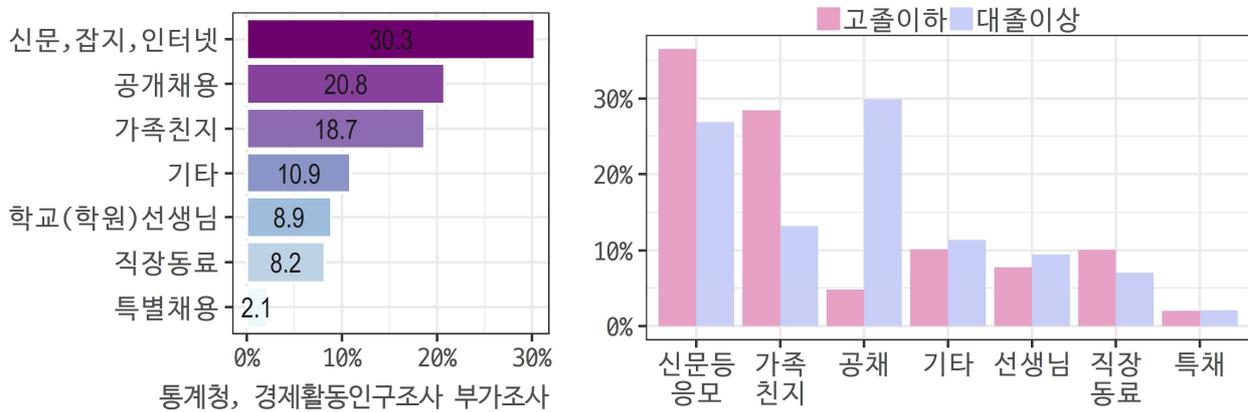
22. 취업 경로

2018년 청년층의 취업경로 구성비는 「공개채용시험」, 「신문 등 응모」는 전년보다 증가하고, 「선생님 등 추천」, 「특별채용」은 감소함

□ 2018년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취업 유경험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30.3%)」, 「공개채용시험(20.8%)」, 「가족·친지 소개(18.7%)」 순임 *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가 36.5%, 대졸이상은 「공개채용시험」이 29.9%로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의 취업 경로(2018) >



【 청년층(15~29세)의 취업¹⁾ 경로 】

(단위 : %)

	계	가족·친지 소개(추천)	그 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학교(학원) 선생님 추천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	공개채용 시험	특별채용	기타 ²⁾
2011	100.0	22.4	11.0	7.8	28.9	18.1	3.3	8.5
2012	100.0	21.8	11.0	8.8	30.0	18.1	2.5	7.6
2013	100.0	21.3	9.6	9.2	30.9	18.4	2.3	8.2
2014	100.0	20.9	8.9	8.6	31.4	18.6	2.0	9.7
2015	100.0	20.8	9.7	8.5	29.5	18.7	1.6	11.2
2016	100.0	20.1	8.3	8.9	30.1	20.9	2.5	9.3
2017	100.0	19.1	8.2	10.0	29.8	18.8	2.7	11.4
2018	100.0	18.7	8.2	8.9	30.3	20.8	2.1	10.9
고졸이하	100.0	28.5	10.1	7.8	36.5	4.8	2.0	10.2
대졸이상	100.0	13.2	7.1	9.5	26.9	29.9	2.1	1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주 : 1)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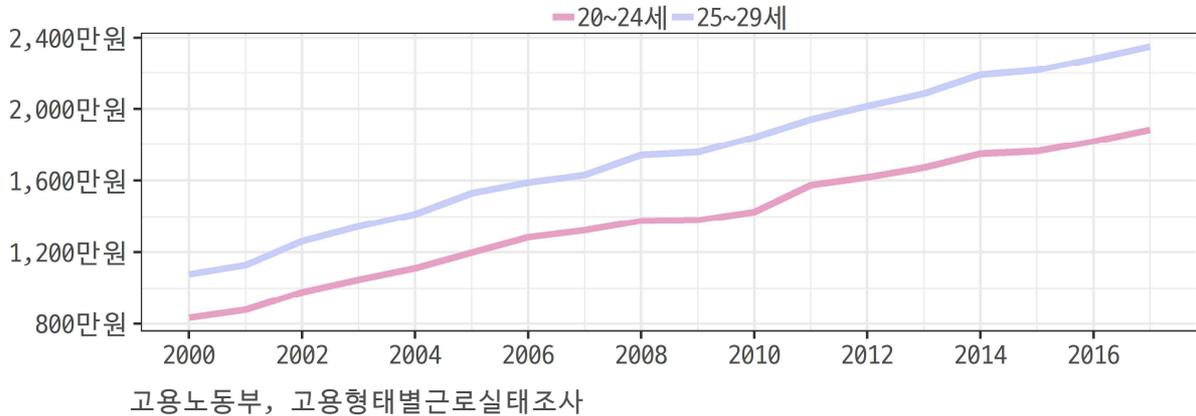
2)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 내 취업소개기관, 직업(취업) 박람회 등

23. 임금수준

2017년 20~24세의 평균임금은 186만원, 25~29세는 235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0%, 3.1% 증가함

- 2017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중 20~24세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85만5천원이며, 25~29세는 235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0%, 3.1% 증가함
- 2017년 임금 상승률은 20~24세, 25~29세 모두 남자(각각 3.5%, 3.4%)가 여자(각각 0.8%, 2.7%)보다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20~24세는 대졸이상(5.3%), 25~29세는 전문대졸(3.9%)에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¹⁾수준 】

(단위 : 천원, %)

연도	20~24세			25~29세			20~24세			25~29세		
	남자	여자	증감률									
2000	833	821		1,077	999		1,126	999		1,044	1,037	
2005	1,200	1,199		1,532	1,458		1,586	1,458		1,416	1,430	
2010	1,427	1,418		1,841	1,728		1,941	1,728		1,640	1,702	
2011	1,575	1,557		1,942	1,856		2,011	1,856		1,770	1,833	
2012	1,618	1,606		2,017	1,933		2,088	1,933		1,818	1,900	
2013	1,672	1,652		2,087	2,002		2,162	2,002		1,900	1,967	
2014	1,748	1,733		2,192	2,106		2,267	2,106		2,065	2,074	
2015	1,763	1,749		2,218	2,122		2,302	2,122		2,052	2,109	
2016	1,819	1,794		2,282	2,187		2,365	2,187		2,133	2,150	
2017	1,855	1,809	2.0	2,352	2,247	3.1	2,446	2,247	2.7	2,170	2,233	3.1
증감률	2.0	0.8		3.1	2.7		3.4	2.7		1.7	3.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대상이며, 매년 6월 기준의 정액 및 초과급여임 (특별급여 제외)

24. 아르바이트

2018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중·고등학생) 비율은 9.0%로 2년 전보다 감소

- 2018년 중·고등학생의 9.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2016년(11.3%)에 비해 2.3%p 감소함
- 중·고등학생 중 남자(8.7%)보다 여자(9.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고,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5.0%로 중학생(1.8%)보다 높게 나타남
- 일주일 평균근로일수는 2.7일, 일일 근로시간은 6.2시간, 시간당 금액은 7,785원임

【 아르바이트 경험 】

(단위 : %, 일, 시간, 원)

	아르바이트 경험률	일주일 평균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간당 금액
2016	11.3	2.8	6.7	6,575
2018	9.0	2.7	6.2	7,785
남 자	8.7	2.8	6.4	7,994
여 자	9.4	2.5	6.0	7,579
중학생	1.8	2.4	5.0	7,884
고등학생	15.0	2.7	6.3	7,776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업종별로는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45.9%)」, 「취폐, 웨딩홀, 연회장(14.1%)」 등 주로 서빙이나 주방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음
-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 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급별로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보다 「전단지 배포」 가 많음

【 아르바이트 업종¹⁾ 】

(단위 : %)

	편의점	대형마트/쇼핑몰/ 아울렛/백화점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	취폐, 웨딩홀, 연회장	패스트 푸드점	전단지 배포	공장
2016	5.5	3.1	41.6	17.9	6.1	6.9	2.4
2018	6.2	2.2	45.9	14.1	6.5	7.8	0.7
남 자	6.8	2.9	41.5	14.4	5.8	8.6	0.9
여 자	5.6	1.5	50.1	13.7	7.2	6.8	0.6
중학생	3.7	2.6	39.5	3.9	1.4	29.9	0.0
고등학생	6.4	2.2	46.5	15.1	7.0	5.5	0.8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주 : 1) 현재 또는 올해(2018)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올해(2018) 가장 장기간 일한 아르바이트 업종

VI. 안전 · 행동

25. 안전사고 사망률

2017년 안전사고로 사망한 청소년은 458명이며, 전년대비 68명 감소함

□ 2017년 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청소년(9~24세)은 458명으로 전년보다 68명(12.9%) 감소함

○ 안전사고별 사망률은 「운수사고」가 인구 10만 명당 3.4명으로 가장 높음

【 청소년¹⁾ 안전사고 사망률 】

(단위 : 명, 인구 10만 명당 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사망률	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기타
2011	818	7.8	5.5	0.3	0.7	0.2	0.0	1.1
2012	731	7.1	4.9	0.4	0.8	0.2	0.0	0.8
2013	652	6.4	4.4	0.4	0.7	0.1	0.0	0.7
2014	684	6.9	4.9	0.3	0.6	0.2	0.0	0.9
2015	561	5.7	4.0	0.4	0.5	0.2	0.0	0.6
2016	526	5.5	3.8	0.4	0.5	0.2	0.1	0.6
2017	458	4.9	3.4	0.4	0.4	0.1	0.1	0.5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 1) 청소년은 9~24세 대상임

□ 2018년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예방교육, 대피교육, 구조 및 구명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은 88.7%임

○ 학교 안전교육 경험률은 2014년(77.7%)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88.7%로 가장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92.4%로 고등학생(85.5%)보다 6.9%p 높게 나타남

【 학교 안전교육 경험률¹⁾ 】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체	77.7	83.8	85.2	84.0	88.7
중학생	80.7	87.4	88.7	87.8	92.4
고등학생	75.0	80.7	82.2	80.8	85.5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이 조사 대상임

주 : 1)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6. 소년범죄

2017년 소년범죄 발생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39.9%)로 나타남

- 2017년 소년범죄자(18세 이하)는 7만2천7백여 명으로 전년(7만6천명)보다 4.3% 감소하였으며,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3.9%를 차지함
-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범죄가 39.9%로 전년보다 3.6%p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흉악범죄, 폭력범죄)는 각각 0.4%p, 3.3%p 증가함
 - 소년범죄 발생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기타(교통범죄 등), 강력범죄(흉악) 순으로 나타났으며,
 - 재산범죄자 구성비는 2014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강력범죄자 구성비는 2016년부터 증가 추세임

< 소년범죄자 현황 >



【 소년범죄자¹⁾ 현황 】

(단위 : 천명, 명, %, %p)

	전체 범죄자 (천명)	소년 범죄자 (명)	구성비	범죄유형별 구성비			
				재산 범죄 ²⁾	강력(흉악) 범죄 ³⁾	강력(폭력) 범죄 ⁴⁾	기타 ⁵⁾
2007	1,990	88,104	4.4	38.2	2.2	26.4	33.2
2008	2,473	134,992	5.5	29.4	2.2	25.2	43.1
2009	2,519	113,022	4.5	40.5	2.8	26.1	30.6
2010	1,954	89,776	4.6	45.1	3.5	25.9	25.5
2011	1,908	83,068	4.4	45.7	4.0	26.8	23.6
2012	2,118	107,490	5.1	44.3	2.9	30.5	22.3
2013	2,147	91,633	4.3	49.9	3.0	24.1	22.9
2014	1,880	77,594	4.1	46.7	4.1	24.9	24.2
2015	1,949	71,035	3.6	45.1	3.8	24.6	26.4
2016	2,020	76,000	3.8	43.5	4.4	25.6	26.4
2017	1,862	72,759	3.9	39.9	4.8	28.9	26.4
증감률	-7.8	-4.3	0.1	-3.6	0.4	3.3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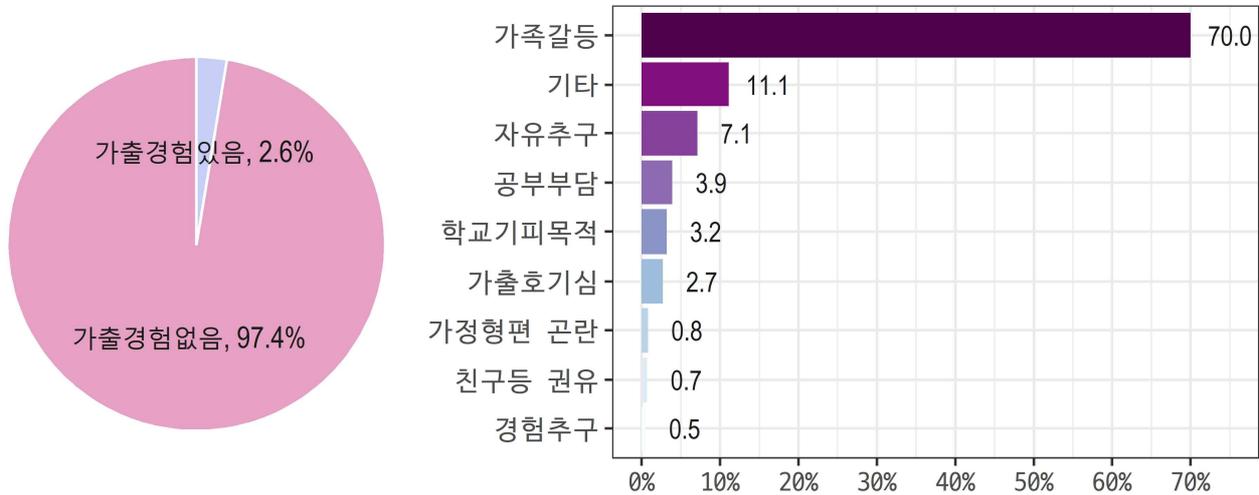
- 주 : 1) '08.6월 소년법 개정에 따라 19세에서 18세로 변경
 2)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등
 3)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4) 공갈, 폭행·상해 등
 5) 교통사범, 저작권법 위반, 기타

27. 가출

2018년 청소년의 가출 원인은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70.0%)」이 가장 많음

- 최근 1년간 가출을 경험한 학생은 2.6%로 나타났으며 2년 전보다 0.1%p 감소함
- 성별로는 남학생(2.7%)이 여학생(2.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3.1%, 초등학생 1.3% 순임
- 가출의 원인은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70.0%)」이 가장 많고, 「기타(11.1%)」,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7.1%)」, 「공부에 대한 부담감(3.9%)」 순임

< 청소년 가출 경험 및 원인(2018)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청소년 가출 경험 및 원인 】

(단위 : %)

	가출 경험1)	가출 원인								
		가출에 대한 호기심	가족과의 갈등	어려운 가정형편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	친구나 선배의 권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기타
2016	2.7	1.8	74.8	1.2	4.7	6.1	1.2	8.0	0.3	1.9
2018	2.6	2.7	70.0	0.8	3.2	3.9	0.7	7.1	0.5	11.1
남자	2.7	3.9	69.1	0.9	4.2	3.9	0.7	7.0	0.9	9.3
여자	2.5	1.3	71.1	0.7	2.0	3.9	0.8	7.2	0.0	13.1
초등학생	1.3	1.4	66.8	0.0	4.6	7.4	1.7	10.9	0.0	7.2
중학생	3.4	3.8	66.1	1.2	2.8	3.5	0.9	6.3	0.0	15.4
고등학생	3.1	2.1	74.7	0.7	3.1	3.2	0.3	6.5	1.0	8.4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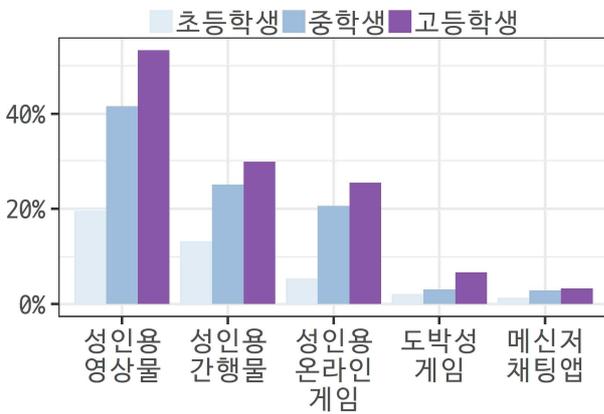
주 : 1)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임

28. 유해매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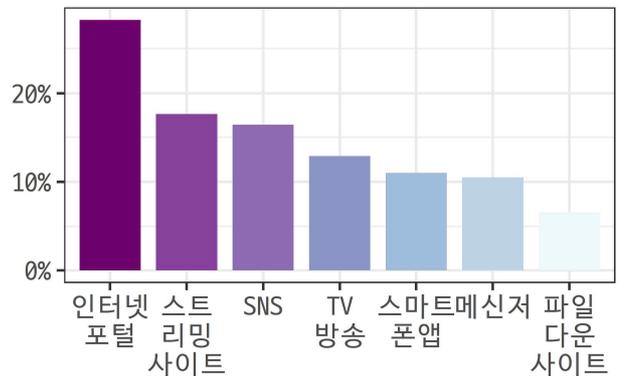
2018년 초중고생의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은 39.4%이며,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음

- 2018년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39.4%로 2년전(41.5%)보다 2.1%p 감소함
- 2018년 청소년이 최근 1년간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주된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28.2%)」,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7%)」, 「SNS 서비스(16.5%)」 순으로 나타남
- 유해매체 이용경험은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2018) >



< 성인용 영상물 이용경로(2018)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¹⁾(복수응답, 2018) 】

(단위 : %)

구분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성인용 영상물 이용경로							성인용 온라인 게임	도박성 게임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 앱
			TV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실시간 방송/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SNS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 폰 앱			
2016	22.0	41.5	13.8	27.6	19.1	10.0	18.1	10.4	11.2	13.1	4.4	3.4
2018	23.3	39.4	12.9	28.2	17.7	10.5	16.5	6.6	11.0	17.8	4.2	2.5
남자	25.9	48.7	15.2	37.5	20.8	12.9	18.7	9.4	14.0	27.1	6.7	2.4
여자	20.5	29.4	10.4	18.2	14.2	8.0	14.1	3.6	7.9	7.8	1.5	2.7
초등학생	13.2	19.6	9.5	10.6	13.8	10.3	6.2	2.6	11.2	5.3	2.1	1.3
중학생	25.0	41.6	12.6	31.0	20.2	11.5	18.7	5.8	11.5	20.6	3.0	2.8
고등학생	29.8	53.3	15.7	39.8	18.7	9.8	22.8	10.4	10.5	25.4	6.8	3.2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주 : 1) 최근 1년간 이용 경험임

29. 스마트폰 과의존

2018년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9.3%로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임

□ 2018년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9.3%로 2016년 (30.6%) 이후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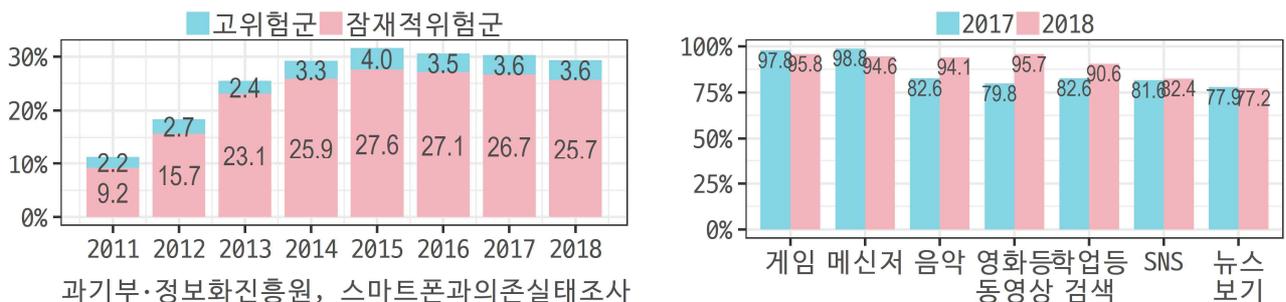
* 과의존위험군(%): 18.4('12) → 25.5('13) → 29.2('14) → 31.6('15) → 30.6('16) → 30.3('17) → 29.3('18)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4.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고등학생(28.3%), 초등학생(22.8%) 순임
- 과의존위험군 중에서 고위험군 비율은 중학생이 4.0%, 고등학생이 3.3%로 중학생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 속하는 10~19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 콘텐츠는 「게임」이 95.8%, 「영화, TV동영상」이 95.7%로 나타났고, 그 외에 「메신저(94.6%)」, 「음악(94.1%)」, 「학업·업무용검색(90.6%)」 순으로 이용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영화·TV·동영상(95.2%)」을 주로 이용하고, 중·고등학생은 「게임(98.5%, 96.6%)」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



【 과의존¹⁾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복수응답) 】

(단위 : %)

	과의존 위험군 ²⁾	주이용 콘텐츠(과의존위험군)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메신저	게임	학업·업무용 검색	음악	SNS	영화·TV 동영상	뉴스 보기 ³⁾
2017	30.3	3.6	26.7	98.8	97.8	82.6	82.6	81.6	79.8	77.9
2018	29.3	3.6	25.7	94.6	95.8	90.6	94.1	82.4	95.7	77.2
초등 학생	22.8	2.0	20.8	85.5	93.3	78.0	86.0	58.1	95.2	45.4
중 학생	34.0	4.0	30.1	95.1	98.5	90.0	96.2	85.6	96.6	80.0
고등 학생	28.3	3.3	25.0	95.5	96.6	93.7	95.2	90.6	95.9	86.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과제의존실태조사(구 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

주 : 1)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2) 10~19세 청소년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

3) 2017년 뉴스검색, 2018년 뉴스보기

30. 흡연 및 음주

2018년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6.7%, 음주율은 16.9%로 전년보다 증가함

- 2018년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6.7%, 음주율은 16.9%로 전년보다 각각 0.3%p,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흡연율은 2007년 13.3%로 가장 높았고, 2016년(6.3%)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음주율도 2006년 28.6%로 정점을 기록 후 2016년(15.0%)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 흡연율 및 음주율 >



【 흡연 및 음주 】

(단위 : %)

	2006	200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흡연율 ¹⁾	12.8	13.3	12.1	11.4	9.7	9.2	7.8	6.3	6.4	6.7
음주율 ²⁾	28.6	27.8	20.6	19.4	16.3	16.7	16.7	15.0	16.1	16.9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대상임

- 주 : 1)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2)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2018년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의 주된 흡연장소는 놀이터·공터·공원 등이 6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PC방·비디오방·노래방(16.6%), 집·친구집 (12.8%), 학교(5.8%), 술집·나이트클럽 등(3.3%)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이 술을 마시는 장소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집, 친구 집에서가 각각 79.7%,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흡연 및 음주장소(2018) 】

(단위 : %)

	현재 흡연자의 주된 흡연 장소 ¹⁾					현재 음주자 음주장소 ²⁾				
	집, 친구집	학교	놀이터, 공터, 공원 등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집, 친구집	놀이터, 공터, 공원 등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2018	12.8	5.8	61.5	16.6	3.3	77.5	33.7	10.6	18.3	12.1
중학생	13.7	2.9	65.3	13.4	4.6	79.7	24.0	7.0	14.3	5.6
고등학생	12.5	6.6	60.5	17.4	3.0	76.8	36.6	11.7	19.5	14.1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대상임

- 주 : 1) 현재 중·고등학생 흡연자의 최근 30일 동안 주로 담배를 피운 장소
- 2) 현재 중·고등학생 음주자의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장소

31. 청소년 상담(1388) 실적

2018년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한 상담건수는 87만8천 건이며, 「대인관계」 > 「정보제공」 > 「정신건강」 > 「가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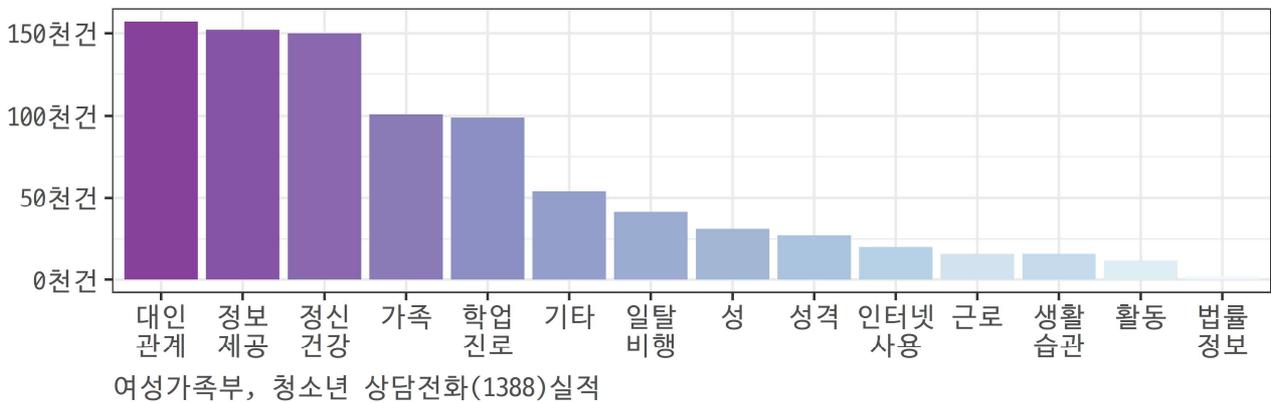
□ 2018년 청소년상담 1388* 상담건수는 87만8천 건으로 전년보다 1.8% 증가 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 전화(1388), 문자, 카카오톡, 사이버상담(인터넷 채팅)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상담유형별로는 「대인관계」가 15만7천 건(17.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보제공(17.3%)」, 「정신건강(17.1%)」, 「가족(11.5%)」 순임

-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이 전년보다 3만2천 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정보제공」은 1만6천 건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함

< 청소년 상담유형별 현황(2018) >



【 청소년 상담유형별 현황 】

(단위 : 천건, %)

연도	계	가족	일탈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	인터넷사용	근로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2014	751	59	38	94	30	22	135	60	13	20	10	189	1	7	75
2015	772	110	33	90	32	27	140	77	18	24	6	136	1	11	66
2016	833	127	38	98	29	29	146	93	16	17	5	143	2	11	79
2017	863	94	39	101	30	30	157	118	16	22	7	168	2	17	61
2018	878	101	41	99	31	27	157	150	16	20	16	152	2	12	54
구성비	100.0	11.5	4.7	11.3	3.5	3.1	17.9	17.1	1.8	2.2	1.8	17.3	0.2	1.4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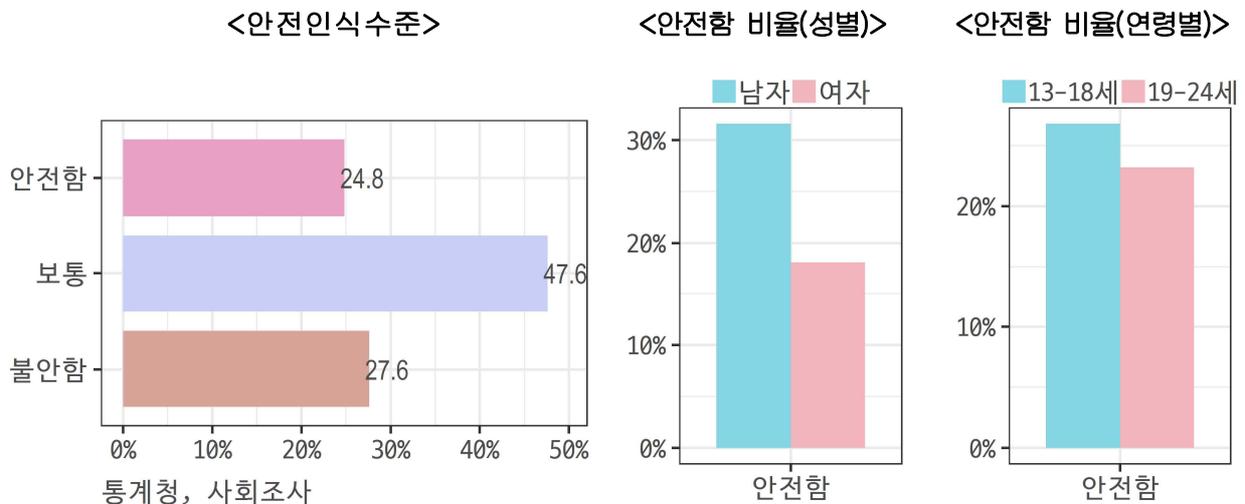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전화(1388) 상담 실적」

3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18년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13~24세) 비율이 24.8%로 2년 전보다 8.9%p 증가함

- 2018년 13~24세 청소년의 24.8%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년 전보다 8.9%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1.6%, 여자는 18.1%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사회 안전」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13~18세의 사회 안전 인식률(26.8%)이 19~24세의 안전인식률(23.2%)보다 높게 나타남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18) >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단위 : %)

	안전함 ¹⁾	보통	불안함 ²⁾
2016	15.9	42.3	41.8
2018	24.8	47.6	27.6
남자	31.6	47.4	21.0
여자	18.1	47.7	34.2
13 ~ 18세	26.8	48.2	24.9
19 ~ 24세	23.2	47.0	29.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매우 안전함'과 '비교적 안전함'을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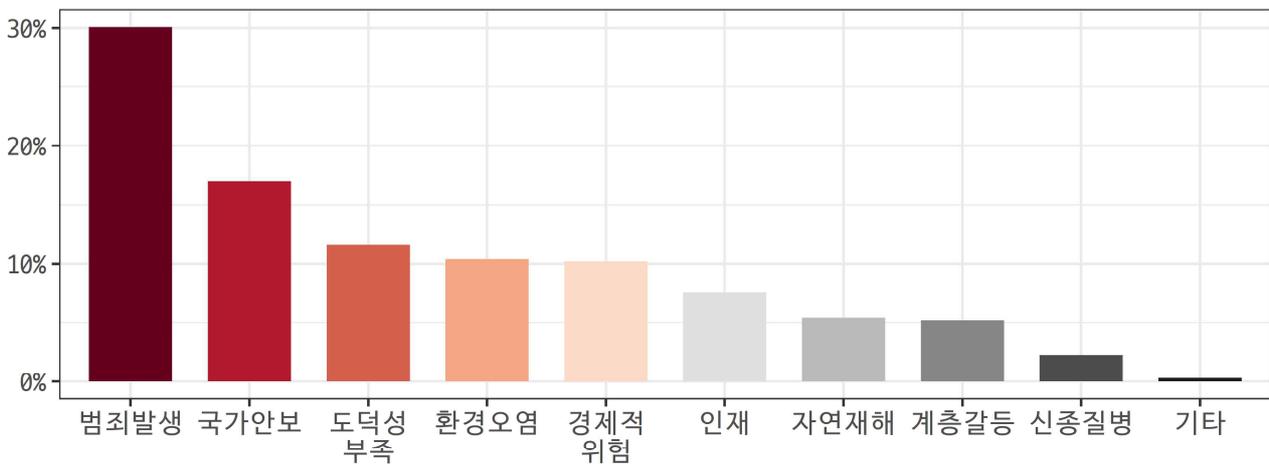
2) '매우 불안함'과 '비교적 불안함'을 합한 수치임

33. 사회의 불안요인

2018년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은 「범죄발생」 임

- 2018년 13~24세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발생(30.1%)」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국가안보(17.0%)」, 「도덕성부족(11.6%)」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의 주된 불안요인 중 「환경오염」은 2년 전에 비해 5.8%p 증가하였고, 「범죄발생」은 10.7%p 감소함
-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은 「국가안보(21.8%)」가 가장 높은 사회 불안요인 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범죄발생(42.5%)」을 주된 사회 불안요인으로 생각함

<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2018) >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

(단위 : %)

	계	국가안보	자연재해	환경오염	인재	경제적위험	도덕성부족	신종질병	범죄발생	계층갈등	기타
2016	100.0	16.1	2.5	4.6	4.9	10.8	11.1	4.2	40.8	4.1	0.9
2018	100.0	17.0	5.4	10.4	7.6	10.2	11.6	2.3	30.1	5.2	0.3
남자	100.0	21.8	5.6	11.0	9.4	12.0	13.6	2.4	17.7	6.2	0.3
여자	100.0	12.2	5.2	9.7	5.8	8.3	9.7	2.3	42.5	4.2	0.3
13~18세	100.0	17.9	6.0	11.8	7.3	5.7	11.5	2.4	31.9	5.2	0.1
19~24세	100.0	16.2	4.8	9.2	7.7	13.8	11.7	2.2	28.7	5.2	0.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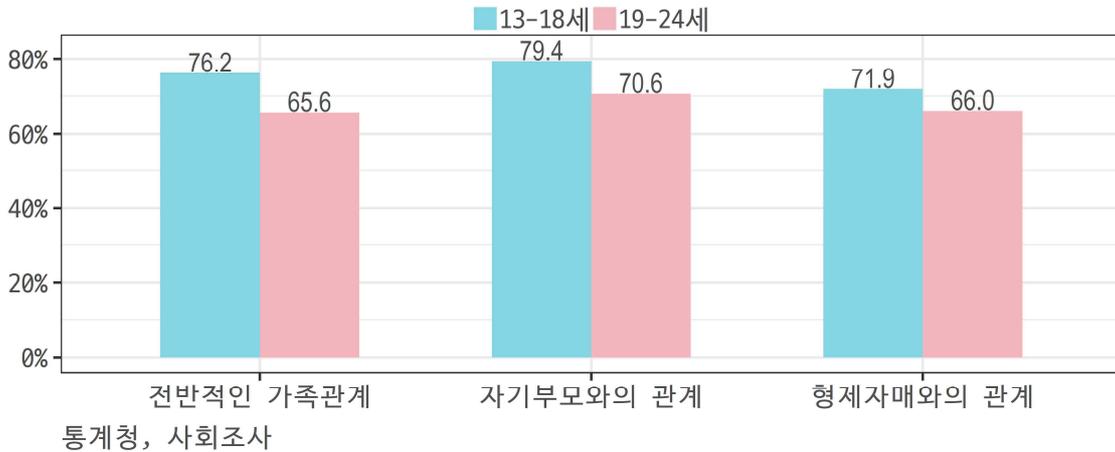
Ⅶ. 관계 및 의식

34. 가족 관계 만족도

2018년 청소년(13~24세)은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 70.4%가 「만족」 함

- 2018년 13~24세 청소년은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 70.4%가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18세 청소년은 19~24세 청소년보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6%p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의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74.6%로 「형제자매와의 관계 (68.7%)」 보다 높음

< 청소년의 가족 관계 만족도(2018, 만족비율) >



【 청소년(13~24세)의 가족 관계 만족도(2018) 】

(단위 : %)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반적인 가족 관계	청소년	70.4	34.3	36.1	26.6	3.0	2.6	0.4
	13~18세	76.2	41.5	34.7	21.1	2.8	2.4	0.3
	19~24세	65.6	28.3	37.3	31.2	3.2	2.7	0.5
자기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	74.6	38.1	36.5	21.1	4.3	3.6	0.6
	13~18세	79.4	44.4	35.0	17.0	3.5	3.0	0.5
	19~24세	70.6	32.8	37.8	24.5	4.9	4.2	0.7
형제자매와의 관계	청소년	68.7	33.2	35.5	26.7	4.7	3.4	1.2
	13~18세	71.9	38.5	33.4	23.3	4.7	3.3	1.4
	19~24세	66.0	28.8	37.2	29.4	4.6	3.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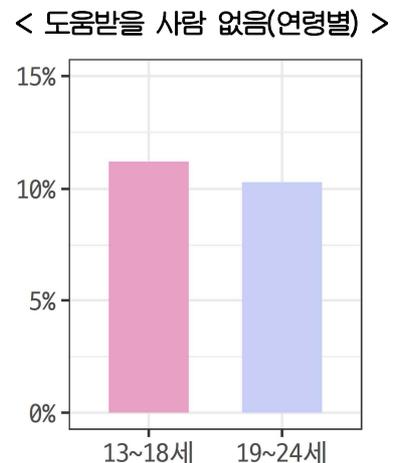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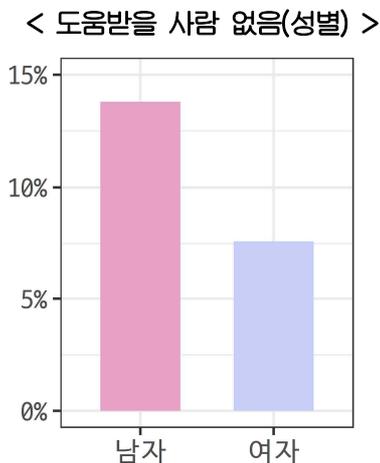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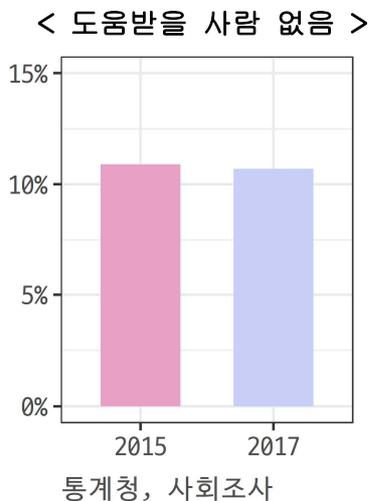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35. 사회적 관계망

2017년 청소년 10명 중 1명(10.7%)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함

- 2017년 13~24세 청소년이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2년 전(2015년)에 비해 0.2%p 감소함
-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3.8%로 여자 청소년(7.6%)보다 6.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11.2%)이 19~24세 청소년(10.3%)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관계망(13~24세) >



【 사회적 관계망(13~24세) 】

(단위 : %)

	계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도움받을 사람수(평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2015	100.0	89.1	4.0	10.9
2017	100.0	89.3	4.2	10.7
도시(동부)	100.0	89.2	4.3	10.8
농어촌(읍면부)	100.0	89.5	4.1	10.5
남자	100.0	86.2	4.1	13.8
여자	100.0	92.4	4.3	7.6
13~18세	100.0	88.8	4.4	11.2
19~24세	100.0	89.7	4.1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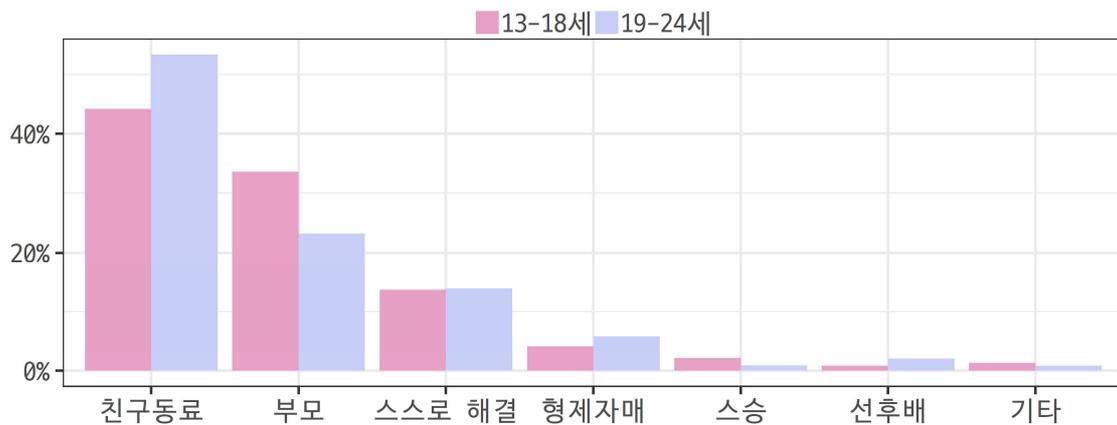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36.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청소년(13~24세)의 고민상담 대상은 「친구·동료」, 「부모」, 「스스로 해결」 순임

- 2018년 청소년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친구·동료」가 49.1%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모(28.0%)」, 「스스로 해결(13.8%)」 순임
-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동료」와 상담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남자 청소년보다 높으며, 남자 청소년은 「아버지」, 「선후배」, 「스승」, 「스스로 해결」 하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은 19~24세 청소년보다 「부모」, 「스승」 과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9~24세 청소년은 「친구·동료」, 「선후배」와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 (2018) >



【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13~24세) 】

(단위 : %)

	계	부모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선후배	스승	스스로 해 결	기타 ¹⁾
			아버지	어머니						
2016	100.0	24.1	3.5	20.6	5.1	44.4	1.9	1.8	21.8	0.8
2018	100.0	28.0	4.1	23.9	5.1	49.1	1.5	1.5	13.8	1.0
남자	100.0	26.6	6.3	20.3	4.1	49.0	1.9	2.1	15.1	1.3
여자	100.0	29.4	1.9	27.5	6.1	49.2	1.0	0.9	12.5	0.8
13~18세	100.0	33.7	4.7	28.9	4.2	44.1	0.8	2.1	13.7	1.3
19~24세	100.0	23.2	3.5	19.7	5.9	53.3	2.0	0.9	13.9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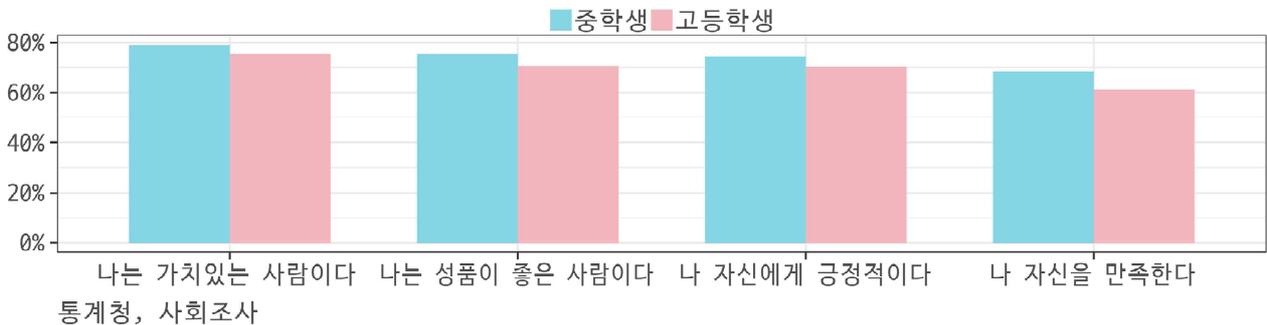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전문 상담가' 포함

37. 자아 존중감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76.7%, 자신에게 만족하는 비율은 64.2%임

- 2018년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많음
-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 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76.7%, 「성품이 좋다」 72.5%,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2.0%이고, 「자신에 대해 만족」 하는 비율은 64.2%임
-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음

< 중·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긍정」 비율(2018) >



【 중·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2018) 】

(단위 : %)

구분	계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매 우	약 간	약 간			전 혀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100.0	76.7	31.7	45.0	20.6	2.7	2.2	0.4
중학교	100.0	78.9	34.0	44.9	19.2	1.9	1.8	0.1
고등학교	100.0	75.3	30.2	45.1	21.5	3.2	2.5	0.7
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100.0	72.5	27.0	45.5	24.6	2.9	2.5	0.4
중학교	100.0	75.3	27.5	47.8	21.9	2.8	2.6	0.2
고등학교	100.0	70.7	26.6	44.0	26.5	2.9	2.4	0.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00.0	72.0	28.5	43.4	23.5	4.5	3.6	0.9
중학교	100.0	74.6	30.6	44.0	22.4	3.1	2.8	0.3
고등학교	100.0	70.2	27.1	43.1	24.3	5.5	4.2	1.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00.0	64.2	26.1	38.1	27.4	8.4	7.1	1.2
중학교	100.0	68.5	29.8	38.7	25.9	5.6	5.2	0.4
고등학교	100.0	61.3	23.6	37.8	28.5	10.2	8.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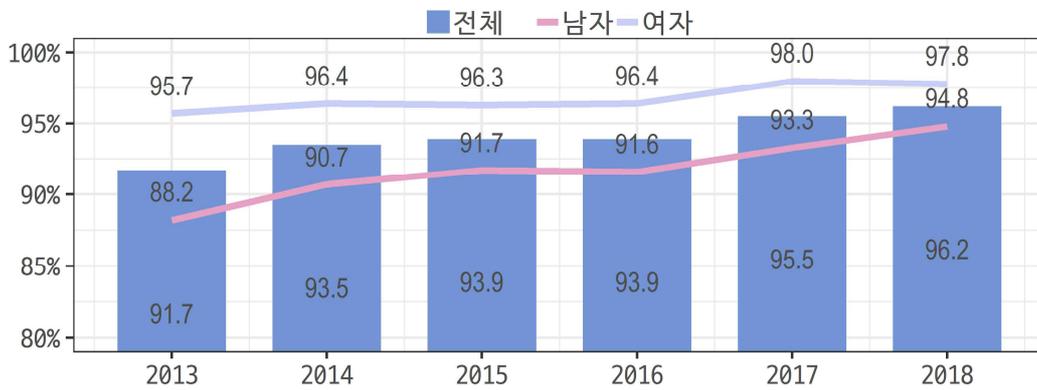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38. 양성평등 인식

2018년 청소년의 96.2%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18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소년의 96.2%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양성평등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학생(97.8%)이 남학생(94.8%)보다 양성평등 의식이 더 강함
- 양성평등 의식을 가진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은 꾸준히 증가함

<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

(단위 : %)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6	6.1	2.3	3.8	93.9	32.3	61.6
2017	4.4	1.7	2.7	95.5	28.8	66.7
2018	3.8	1.2	2.6	96.2	27.4	68.8
남 학생	5.3	1.6	3.7	94.8	32.6	62.2
여 학생	2.2	0.8	1.4	97.8	21.9	75.9
초등학생	4.3	1.4	2.9	95.6	23.0	72.6
중학생	2.6	0.6	2.0	97.4	29.1	68.3
고등학생	4.4	1.6	2.8	95.7	29.5	66.2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39. 인권 의식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95.8%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음

□ 2018년 청소년(초4~6·중·고등학생)의 95.8%가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학생(94.3%)보다 여학생(97.4%)이 3.1%p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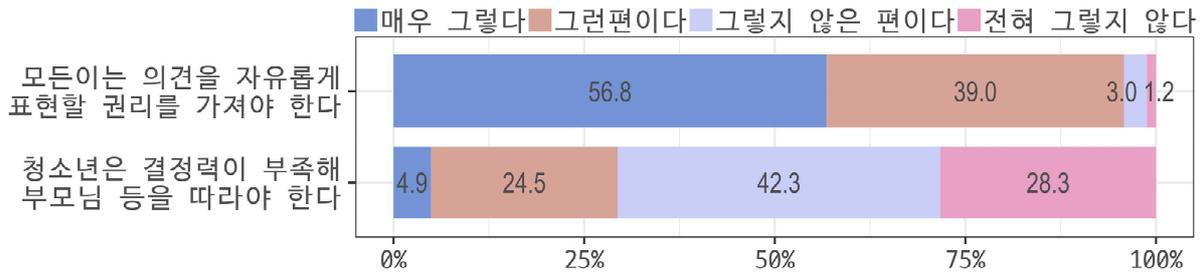
* 「표현의 자유」에 동의함(%) : 94.0('15) < 94.7('16) < 95.6('17) < 95.8('18)

□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에 청소년 10명 중 7명(70.6%)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런 인식은 여학생(74.6%)이 남학생(66.8%)보다 7.8%p 더 높게 나타남

○ 「청소년 결정능력 부족」에 동의하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함(0.1%p)

* 「청소년 결정능력 부족」에 동의(%) : 30.2('14) → 32.2('15) → 29.6('16) → 29.3('17) → 29.4('18)

< 인권의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인권 의식 】

(단위 : %)

주제	연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2016	5.4	2.0	3.4	94.7	44.8	49.9
	2017	4.5	1.7	2.8	95.6	38.5	57.1
	2018	4.2	1.2	3.0	95.8	39.0	56.8
	남학생	5.7	1.6	4.1	94.3	42.5	51.8
여학생	2.6	0.8	1.8	97.4	35.3	62.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016	70.4	27.6	42.8	29.6	25.8	3.8
	2017	70.7	29.7	41.0	29.3	24.8	4.5
	2018	70.6	28.3	42.3	29.4	24.5	4.9
	남학생	66.8	25.6	41.2	33.1	26.9	6.2
여학생	74.6	31.1	43.5	25.4	21.9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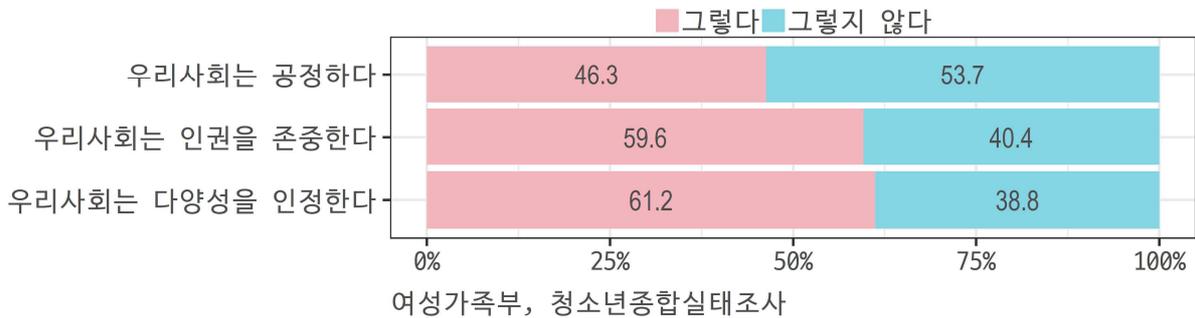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40. 사회관

2017년 청소년 중 61.2%는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고 생각하며, 그 다음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59.6%)」, 「우리사회는 공정하다(46.3%)」 순임

- 2017년 청소년 중 61.2%는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고 생각하며, 그 다음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59.6%)」, 「우리사회는 공정하다(46.3%)」 순임
- 13~18세 청소년 중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2.8%, 우리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64.6%,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64.8%임
- 반면 19~24세 청소년 중 41.0%만이 우리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등, 19~24세 청소년의 사회관이 13~18세 청소년의 사회관보다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의 사회관 >



【 청소년의 사회관(2017) 】

(단위 : %)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2017	53.7	7.2	46.5	46.3	44.2	2.1
남 학생	53.8	6.3	47.5	46.2	43.9	2.3
여 학생	53.7	8.3	45.4	46.2	44.4	1.8
13-18세	47.1	7.0	40.1	52.8	50.1	2.7
19-24세	59.0	7.4	51.6	41.0	39.5	1.5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2017	40.4	4.4	36.0	59.6	53.3	6.3
남 학생	40.6	4.1	36.5	59.4	52.3	7.1
여 학생	40.2	4.8	35.4	59.8	54.4	5.4
13-18세	35.5	4.0	31.5	64.6	56.8	7.8
19-24세	44.3	4.8	39.5	55.7	50.6	5.1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2017	38.8	4.8	34.0	61.2	57.2	4.0
남 학생	38.4	4.7	33.7	61.6	57.1	4.5
여 학생	39.3	4.9	34.4	60.7	57.3	3.4
13-18세	35.3	4.1	31.2	64.8	59.6	5.2
19-24세	41.6	5.3	36.3	58.5	55.4	3.1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3~24세 청소년 대상

VIII. 사회참여

41. 사회에 대한 신뢰도 및 관심도

2017년 13~24세 청소년의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5.38점(10점기준)임

- 2017년 13~24세 청소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5.38점*임
 - * 우리 사회는 전혀 믿을 수 없다(0점) ~ 매우 믿을 수 있다(10점)
-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5.42점)가 여성 청소년(5.32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5.52점)이 19~24세 청소년(5.26점)보다 높았음
-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수준은 평균 4.93점*임
 - *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전혀 관심 없다(0점) ~ 매우 관심 있다(10점)
- 연령별로는 19~24세 청소년의 관심도 평균이 4.99점으로 13~18세 청소년(4.86점)보다 0.13점 높아,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이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신뢰도(2017) >



< 사회이슈 관심도(2017)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사회 신뢰도 및 관심도 】

(단위 : 점/10점)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2017	5.38	4.93
남자	5.42	4.92
여자	5.32	4.95
13~18세	5.52	4.86
19~24세	5.26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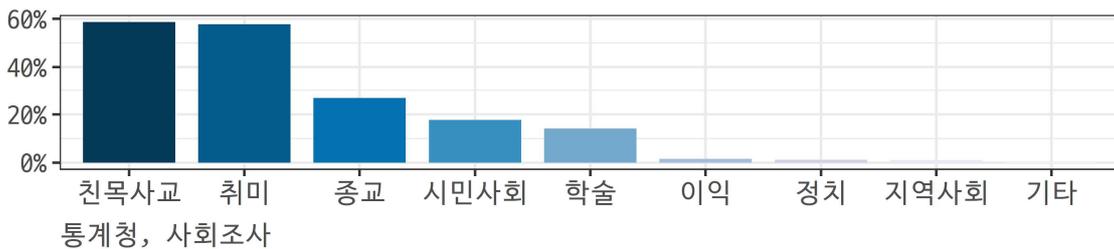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3~24세 청소년 대상

42. 단체 참여

2017년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는 「친목 및 사교(58.7%)」, 「취미, 스포츠, 여가활동(57.8%)」, 「종교(26.8%)」 순임

- 2017년 지난 1년 동안 동창회, 취미활동 등의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청소년은 35.4%로 2년 전(35.7%)보다 0.3%p 감소함
- 참여 단체별로는 「친목 및 사교단체(동창회 등)」이 5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취미·스포츠·레저단체(57.8%)」, 「종교단체(26.8%)」, 「시민·사회단체(17.8%)」 순임
 - '15년 대비 단체참여율은 「취미·스포츠·레저단체, +12.5%p」, 「친목 및 사교단체, +3.1%p」 등 대부분의 단체에서 참여율이 증가했으나, 「시민·사회단체」만 3.1%p 감소
-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35.7%)이 남자 청소년(35.1%)보다 참여율이 높으며, 남자 청소년은 「취미, 스포츠·레저단체(65.2%)」 참여가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친목 및 사교단체(동창회 등)(59.9%)」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의 단체참여 >



【 청소년의 단체참여(복수응답) 】

(단위 : %, %p)

	있다	참여단체								
		친목 및 사교단체 (계, 동창회 등)	종교단체 (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 사회 단체 (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학술 단체	이익단체 (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정치 단체	지역사회 모임 (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기타
2015	35.7	55.6	26.6	45.3	20.9	13.2	0.9	0.5	0.6	0.1
2017	35.4	58.7	26.8	57.8	17.8	14.2	1.6	1.2	1.0	0.3
증감	-0.3	3.1	0.2	12.5	-3.1	1.0	0.7	0.7	0.4	0.2
남자	35.1	57.5	28.2	65.2	15.9	12.8	1.4	1.8	1.2	0.1
여자	35.7	59.9	25.5	50.5	19.6	15.6	1.7	0.6	0.9	0.5
13~18세	32.0	41.0	31.5	61.2	28.5	12.4	0.8	1.6	0.8	0.7
19~24세	38.5	71.8	23.4	55.3	9.8	15.5	2.1	0.8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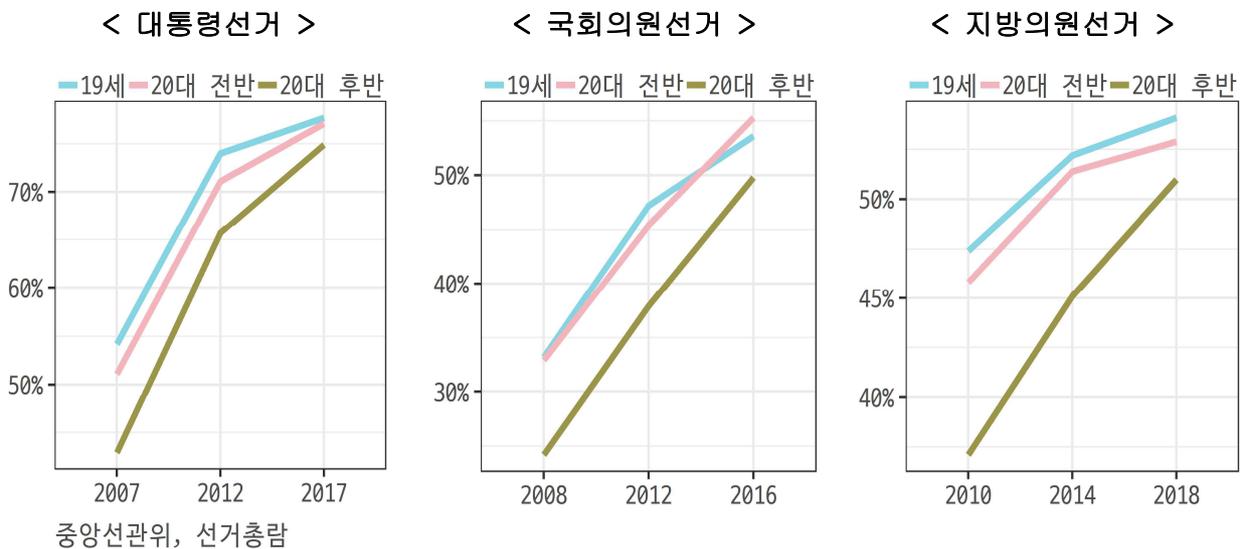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43. 투표 참여

최근 모든 선거에서 청소년(19세, 20대 전반) 투표 참여율은 증가 추세임

- 청소년 투표율(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은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연령대인 19세(54.1%), 20대 전반(52.9%)의 투표율이 20대 후반(51.0%)보다 높았음

< 연령대별 선거 투표율 >



【 청소년의 선거 투표율 】

(단위 :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2007	2012	2017	2008	2012	2016	2010	2014	2018
전 체 ¹⁾	63.0	75.8	77.2	46.1	54.2	58.0	54.5	56.8	60.2
19세	54.2	74.0	77.7	33.2	47.2	53.6	47.4	52.2	54.1
20대 전반	51.1	71.1	77.1	32.9	45.4	55.3	45.8	51.4	52.9
20대 후반	42.9	65.7	74.9	24.2	37.9	49.8	37.1	45.1	51.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총람」, 「국회의원 선거총람」, 「지방의회의원 선거총람」
 주 : 19세 이상 모든 연령층의 선거투표율